

2015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 정책 자료집

- | | | | |
|----|--------------------------------------|----|---------------------------|
| 17 | 11:30 @중도 앞 공터
1차 합동유세 | 25 | 09:00 |
| 18 | 20:00 @1기숙사 카페테리아
국캠 정책토론회 · 합동유세 | 26 | 2015 학생회 선거
투표 기간 |
| 20 | 12:00 @중도 앞 공터
정책토론회 | 27 | 19:00 |
| 24 | 11:30 @중도 앞 공터
2차 합동유세 | 28 | 00:00 @학생회관
개표 및 당선 공고 |

제52대 연세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lub.cyworld.com/yonseivote2015
yonseivote2015@gmail.com

11월 25일(화) ~ 11월 27일(목)은 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 | | | | |
|----|--------------------------------------|----|---------------------------|
| 24 | 11:30 @중도 앞 공터
2차 합동유세 | 28 | 00:00 @학생회관
개표 및 당선 공고 |
| 20 | 12:00 @중도 앞 공터
정책토론회 | 27 | 19:00 |
| 18 | 20:00 @1기숙사 카페테리아
국캠 정책토론회 · 합동유세 | 26 | 2015 학생회 선거
투표 기간 |
| 17 | 11:30 @중도 앞 공터
1차 합동유세 | 25 | 09:00 |

선거 정책 자료집

중앙학생회
총여학생회

2015

제52대 총학생회 및 제26대 총여학생회 선거 운동본부 공동 공약

〈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공약 〉

제안 :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학생사회 역시 도외시킬 수 없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국제 캠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송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비정규직으로서 차별받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생, 교수, 교직원과 같이 연세대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내 노동자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시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공동 공약 〉

제안 : 연세대학교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 하나. 제51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논의한 비상대책위원회 조항과 장애인권위원회 조항 신설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52대 총학생회 확대간부수련회 임시 화운위에서 논의한다.

〈 2015 연세대학교 새내기 맞이 기획단 관련 공동 공약 〉

제안 : 연세대학교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 하나. 제51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의결한 새내기맞이 기획단 구성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총괄하고 집행한다.
- 하나. 새맞단을 진행할 시에, 새롭게 구성된 이전 새내기클럽 스탭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환경보호 캠퍼스 관련 공동 공약 〉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학내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선거과정과 당선 후 모든 활동에 있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환경보호 인식의 변화 및 실천에 책임있는 자세로 교내 환경관련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 하나. 그린캠퍼스협의회, 시설처 및 학교 부처, 교수공동체 연세환경포럼, 환경관련 학생모임 등과 연계하여 포럼, 캠페인 등의 환경관련 활동을 진행한다.

새롭게 나타나는 생각,

대시상
능
고



제26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합니다.

프롤로그

2014년

변화된

하나의 지형 속에서

연세 사회와

총여학생회를 다시 봅니다.

목차

1 후보 소개

2 총여학생회론

3 기조

4 정책

다시
봄

정후보 정혜윤 (철학 3)



2010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2012

연세대학교 철학과 입학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 수습편집위원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현 여성주의 행동집단) [결] 사무차장
한국여성민우회 물.길 프로젝트 3기
: 대학생 페미니스트 파티 개최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객원필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소책자 제작 참여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 리뷰어 피움뷰어 활동

2013

연세대학교 중앙 교지 『연세』 수습편집위원
여성주의 소모임 페다고지 활동
책과 함께 광장으로 중도 하차 : 도서관화제 기획 참여
백양로 난장이

2014

연세대학교 중앙 교지 『연세』 편집위원
백양로 자료집 『백양로 대안은 있었다』 편집팀
철학과 철학학회 위415 학회지 『새벽철학』 디자인

부후보 김다현 (문화인류학 4)



2009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입학

2010

문화인류학과 전공 진입
G20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자원활동가
하자센터 달맞이 축제 진행팀

2011

희망제작소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모전 수상
반성폭력 세미나 <상처-꽃> 기획팀
퀘스처닝과 민달팽이 유니온의 반찬만들기 교실 준비팀
살림 여성주의 의로생협 자원활동가

2012

성미산 문턱 없는 밥집 살리기 대책위 활동
세미나 <노동과 열정 사이> 기획팀

2013

연희배움해방전선 실무팀
생협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세미나 <변신미소녀와 이성애중심주의?> 기획팀

20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가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성소수자 항목 바로잡기 활동
공감 월례 포럼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준비팀

총여학생회론

1980년대, 대학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는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먼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과/반과 동아리 공동체, 심지어 학생 운동 진영 내부에서마저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학생들에게 요구되어온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도 더,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해야지” 라는 말이 빈번히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 과/반 공동체에서 일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연애를 할 때, 심지어 휴식을 취할 때마저도 여학생들은 성별과 얽혀있는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민한 성찰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공동체가 바로 총여입니다.

1980년대, 여자 대학생은 수적, 사회적 소수자였습니다. 이런 소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주의와 총여는 여성 범주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소수자 문제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총여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을 고민하는 것과 함께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거나, 장애 학생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특정 문화나 성별에 차별적이지 않은 강의를 들을 권리, 학내의 구성원 모두가 적절한 휴게 공간을 지녀야 할 필요 등을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학생 사회의 노력으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적어도 성폭력이 나쁘다는 관념이 널리 인지되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에게 특정한 성적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교양’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 또한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제 성폭력 개념에 대해 이해가 전무한 학생들이나, 성적 규범에 어긋나는 누군가의 행위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하는 학생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성평등(gender equity)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성평등한 학내 사회가 이룩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학내에서 성소수자 학생이나 장애 학생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봄〉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봄〉은 예전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 학생 사회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동시에, 여전히 학내에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는 데서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찾으려 합니다.

다
시,
봄

총여학생 기조

1. 이만 연세인과 소통하는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총여학생회를 다시 봅니다. 총여학생회가 탄생했던 1980년대와 지금 2014년이 다르듯, 2015년의 총여학생회는 예전의 총여학생회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학내 구성원 전체가 지혜를 모아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봄〉은 2015년 총여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지니고 있는 모든 학우들이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은 국제캠퍼스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캠퍼스의 이원화로 학생회가 새내기 학우들에게 다가가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내 공동체 역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고, 〈다시 봄〉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물리적·인식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교육·문화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다시 봄〉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봅니다. 좀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봄〉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공동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성폭력의 개념과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학우들이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라는 질문을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3. 차별없는 캠퍼스 만들기

〈다시 봄〉은 차별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학우의 권리를 고민하는 것 이외에도, 소수자로서 학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의 불편함을 살피겠습니다. 교육·문화 등의 부문에서 장애 학우와 성소수자 학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적으로도 소수이기에, 학내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어떤 학우들의 불편함과 고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통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다
시
봄

정책 소개

- ㄱ 반성폭력을, 다시 봄
- ㄱ 문화를, 다시 봄
- ㄱ 국제캠퍼스를, 다시 봄
- ㄱ 차별없는 캠퍼스를, 다시 봄

반성폭력을 다시, 봄

1. 성폭력 예방/대처 가이드북 제작

많은 이들에게 과/반과 동아리 등의 공동체는 학내 생활과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차원의 노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과/반과 동아리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철저히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시 봄〉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성적인 폭력에서 유발된 피해는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분명 피해감과 억울함, 괴로움, 분노는 있는데 이게 정말 성폭력인지, 혹은 이걸 꼭 성폭력이라고 불러야만 자신의 괴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지 결정을 내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다시 봄〉은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할 때, 공식적인

사건해결은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을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 많은 학우들이, 특히 새내기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단과대 OT와 새터 전에 배부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북 여분을 총여학생회실에 항상 비치해 놓겠습니다.

2. 성폭력 신고를 용이하게

학우들이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이 성폭력이라고 정의내리기 어려울 때, 성폭력 사건을 겪었다고 판단될 때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전화/문자/메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대나무숲을 운영하겠습니다. 구글 문서 익명 제출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제보자가 공론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나무숲에 사례를 수정 및 게시하여 성폭력의 실제 사례를 널리알려, 학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학우들이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라는 질문을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3. 학내 성폭력 전문 상담원 확충 요구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합니다. 그러나 학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 빈도에 비해 성폭력 전문 상담원의 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시 봄〉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유에 힘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예산 편성, 기관 확보 등을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4.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 개설

신체를 보호하는 ‘기술’을 주로 지칭하는 호신술 수업과는 달리, 여성주의적 방어훈련은 기술적 측면 이외에도 우리의 몸에 내재해있는 폭력에 대한 공포, 위축, 방어적 표현, 불안감 등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며 해소하는 ‘치유’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여성주의적 방어훈련은 평소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 공포감, 피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봄〉은 외부 단체 및 여학생 부처 등에 조언을 얻어 자기 방어 훈련 수업에 구체적인 상을 잡고, 여성주의적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내 호신술 수업에도 이러한 방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자!

순천향대학교 '여성의 몸과 자기 방어' (3학점 교양과목)

수업 구성: 강의 45% / 영상물 시청 및 토론 10% / 몸훈련 실습 45%
전반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몸과 권력, 성별제도, 여성의 쾌락, 폭력과 공포에 대한 강의 진행
후반부: 태권도 사범과 함께 자기방어훈련실습 진행

5. 학생 대표자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할 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내부의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표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역량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시 봄〉은 성폭력 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각 단위의 책임자인 학생 대표자들이 받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를 다시 봄

1. 문화 생활 지원

문화 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을 위해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 인권영화제 등 대안적인 영화, 전시, 공연을 발굴하고 학우들의 관람을 지원하겠습니다. 후기집, 매체 발행 등의 후속작업으로 학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작업을 시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이 좀 더 즐겁게, 편안하게 대안적인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 여학생 휴게실 재정비 / 문화공간화

여학생 휴게실에 도서등과 스탠드를 구비하여 더욱 편안한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과 매체를 구비, 여학생 휴게실을 보다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3. 성평등 세미나

성별 규범, 성폭력, 성평등, 연애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학내의 모임과 세미나를 지원하겠습니다.

4. 대안 문화 캠프

최근 공정 여행, 생태 여행, 여성 유기농 생산자와 함께 하는 농활 등 다양한 대안 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봄〉은 대안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학우들을 위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를 다시, 봄

1. 성폭력 전문 상담원 배치 요구

신촌캠퍼스에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센터와 성폭력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반면, 국제캠퍼스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입생이 공동체 내부에서, 혹은 기숙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해 상담 받거나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것입니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신입생 모두가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고, 신촌과 거리가 멀다는 특성상 성폭력 관련 기구 또는 총여학생회와 소통하기가 어려워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다시 봄>은 국제캠퍼스에 성폭력 전문 상담 인원을 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성인지 교육 강화

현재 국제캠퍼스 내에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반성폭력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신입생 OT 시기에 실시되는 교육을 제외하면 신입생들은 올바른 성인지를 제대로 함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RC 교육원의 주관으로 반성폭력 교육, 하우스 차원의 강연 등 다양한 시도가 국제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입니다.

<다시 봄>은 국제캠퍼스 신입생 개개인이 올바른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지/반성폭력 교육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신입생을 위한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요구에 무관심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과 함께 하며 RC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RA, RHC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지/반성폭력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3. 다양한 문화 사업 실시

국제캠퍼스는 신촌캠퍼스에 비해 문화 행사가 부족합니다. 국제캠퍼스의 학우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4. 소통 활성화

국제캠퍼스에 총여학생회실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SNS와 이메일을 통해 국제캠퍼스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캠퍼스를 다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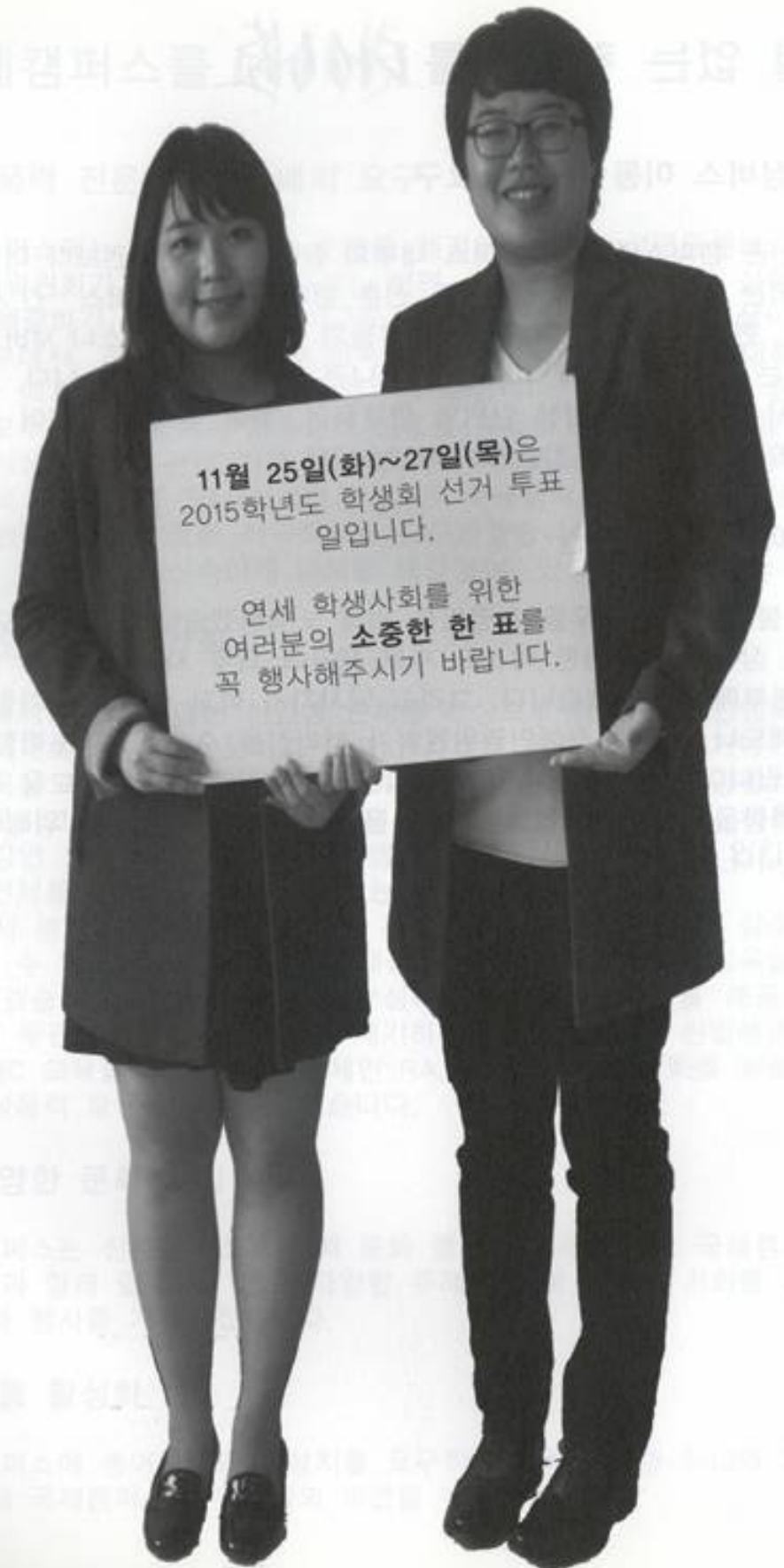
1. 저상버스 이동권 보장 요구

현재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내부의 장애 학생 이동권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촌 캠퍼스-국제 캠퍼스 간 이동권입니다.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경우, 셔틀 버스나 M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동권에 크나큰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봄>은 다른 학생 단위와 연대하여, 학교 본부에 휠체어 리프트 버스 또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겠습니다.

2. 장애 학생 교육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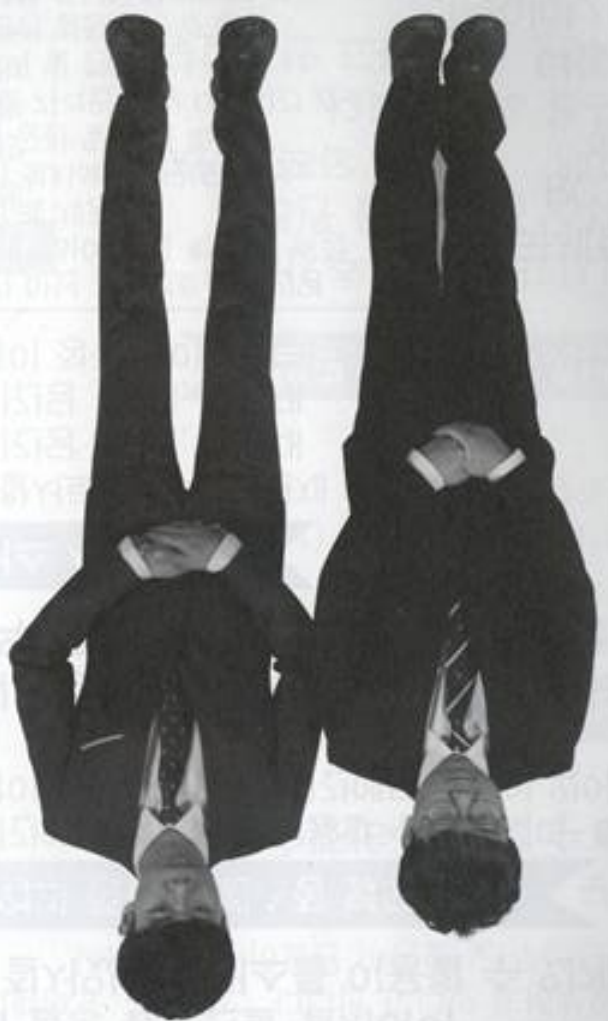
<다시 봄>은 장애 학우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수업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텍스트 자료 제공이 의무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본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학교 환경을 평가할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로 장애인권위원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학내 장애인지교육 프로그램의 역량을 제고하고, 장애인지교육을 의무사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5일(화)~27일(목)은
2015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
일입니다.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5~27일은 2015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DOUBLE YOU
연세대학교 학생회

학생회는 여러분의 권으로 시작합니다.

제52대 총학생회 및 제26대 총여학생회 선거 운동본부 공동 공약

〈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공약 〉

제안 :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학생사회 역시 도외시킬 수 없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국제 캠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송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비정규직으로서 차별받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생, 교수, 교직원과 같이 연세대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내 노동자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 시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공동 공약 〉

제안 : 연세대학교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 하나. 제51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논의한 비상대책위원회 조항과 장애인권위원회 조항 신설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52대 총학생회 확대간부수련회 임시 화운위에서 논의한다.

〈 2015 연세대학교 새내기 맞이 기획단 관련 공동 공약 〉

제안 : 연세대학교 제51대 중앙운영위원회

- 하나. 제51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의결한 새내기맞이 기획단 구성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총괄하고 집행한다.
- 하나. 새맞단을 진행할 시에, 새롭게 구성된 이전 새내기를립 스탭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환경보호 캠퍼스 관련 공동 공약 〉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학내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선거과정과 당선 후 모든 활동에 있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 하나.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환경보호 인식의 변화 및 실천에 책임있는 자세로 교내 환경관련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 하나. 그린캠퍼스협의회, 시설처 및 학교 부처, 교수공동체 연세환경포럼, 환경관련 학생모임 등과 연계하여 포럼, 캠페인 등의 환경관련 활동을 진행한다.

제52대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후보
송준석

| 정치외교학과 3학년
| 제5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슬아

| 노어노문학과 3학년 |
제51대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

더 나은 내일 당신과 함께
SYNERGY



총학생회장 후보

송준석

| 정치외교학과 3학년
| 제5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 2012** 공주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2학번 B반 부기장
4.11 총선 청년 유권자 운동 <표를 품은 청년> 기획단원
<응답하라 착한 기숙사> 기획단원
<대학평의원회 세움단> 단원
- 2013** 제50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Coming up!> 집행위원장
<응답하라 착한 기숙사 끝판왕> 발언팀장
RC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단 <알송달송> 행사기획팀장
사회과학대학 축제 사림제 <사.당.역> 기획단장
- 2014** 제5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Solution> 학생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연세대학교 교육권리찾기 실천단 <Try again> 대인홍보팀장
국제캠퍼스 교육문제 해결 TFT <RC no CR> 민주적 RC팀장
연세대학교 국토대장정 중앙 길잡이
우정원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T 활동

- 2012** 동일여자고등학교 졸업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1학기 학번대표
제33대 총 동아리연합회 <동행> 협력국원
- 2013**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부학생회장
2013 2학기 동아리 박람회 기획단원
- 2014** 제51대 문과대학 학생회 <BLOOM> 부학생회장
장애인권위원회 준비위원
연세대학교 교육권리찾기 실천단 <Try again> 네트워크기획팀장
국제캠퍼스 교육문제 해결 TFT <RC no CR> 생활팀장
연세대학교 국토대장정 조장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슬아

노어노문학과 3학년 |
제51대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 평가 & <SYNERGY> 기조 해설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많았습니다. '부산외대 OT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최근의 '판교 한풍구 추락사고' 까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사고의 근원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칙과 기본을 버린 사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학교 또한 그랬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듣는 수업의 질보다 대외적 이미지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학교의 모습은 한국사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양로 가스 누출 사고', '체육관 앞 지반 침하 사고', '국제캠퍼스 누수사태'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대외 이미지를 가다듬는 일에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학교의 모습은 백양로를 덮고 있는 공사판의 먼지마냥 우리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수강신청 대란, 비싼 학생식당 문제는 여전했고 학생들이 세운 우정원 기숙사는 지역 공공기숙사보다도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은 어땠을까요?

당신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겠다며 새로 당선된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은 초기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팍 차 보였습니다. 당선된 직후부터 학생 주거 상담사를 통해 <집보셈>을 통한 주거상담을 운영, 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개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4월에는 2000명의 학생들이 백양로에 모여 재수강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성사시키며 학교에 학생들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혼잡시간대에 국캠-신촌 셔틀버스를 3대 증차시켰고, 국제캠퍼스 누수사태 시에는 학생들과 함께 행정팀 항의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아는 든든한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과 항상 함께하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인 사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TFT>를 통해 6.4지방선거기간 동안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역 후보에게 전달했고,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와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학 평가, 삼성 총장추천제 등에 대해 총학생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촌 주민들의 기숙사 건립 반대 및 우정원 기숙사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학생회'라는 초기 구호와는 달리 결국 정책적인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해 학생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재수강 문제를 재논의하려고 했지만, 학교와의 협상을 끝내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240억 리턴 장학금>, <밥값 10% 인하> 등 교육 재정 관련 공약들 또한 현실성의 문제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소 포퓰리즘적인 <100% 복지> 공약은 총학생회의 역할을 과도하게 비대화시켜 다른 교육권 문제들에 쏟아 부어야 할 역량을 약화시킨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당신과 함께하는 <SYNERGY>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능력에 경험을 더하면 <SYNERGY>!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1년이었습니다. SYNERGY는

단과대 학생회를 다년간 경험한 후보자들의 넓은 포용력으로 학교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3년 동안 학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과 감각을 키운 후보자들이 이제는 교육권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힘을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학생회에 다른 생각을 더하면 <SYNERGY>!

SYNERGY는 자치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부흥으로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학생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캠퍼스와 신촌캠퍼스의 분리로 총학생회의 역할이 과도하게 커지는 대신 단과대 학생회 및 자치단체의 역할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총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와 자치단체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 큰 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 당신과 함께 SYNERGY가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 당신과 함께
SYNERGY

후보자 소개
제51대 총학생회 평가
기조 소개
차례

생활비 인하를
당신과 함께 SYNERGY

신문고 장학금 확충
우정원 기숙사비 재논의
생협 조합원 할인제도
근로장학생 원클릭원부

01 생활비

일상에 기발함을 더하면
SYNERGY

02 일상

외국인, 군인도 상담하는 집보샘 시즌 2
아르바이트 지킴이
안심택배함 설치
동문길 가로등 설치
놀라운 및 학내 휴식공간 확충

공간에 섬세함을 더하면
SYNERGY

학생 행사 책임자 안전교육 실시
백양로 자치공간 확보 및 펜스 미관 정비

제도에 참여를 더하면
SYNERGY

민주적 총장선출제 복권
대학평의원회 정례화 및 구조 개선
외국인 학생회 봉사장학금 신설 및 영어공지 확충

09 깨알공약

연고전 130주년 문화행사
릴레이강연회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시너지교실

06 제도

문화에 유쾌함을 더하면
SYNERGY

05 문화

08 Solution 이월 공약

04 캠퍼스

07 국제캠퍼스

행복한 국캠을
당신과 함께 SYNERGY

03 학사제도

학사제도 개선
당신과 함께 SYNERGY

재수강 6.20 총장 합의안 이행
수강신청 예약순번제
졸업학기 의무수강제 폐지

더 나은 생활, 당신과 함께 SYNERGY!



1. 신문고
장학금 확충

2. 우정원
기숙사비
재논의

3. 생협조합원
할인 제도

4. 생협 인턴
제도 신설

5. 2015
등심위 전략

등록금만 내고 살 수 있으세요?

대학생 한달 생활비는 약 466,000원입니다.

* 각 연구소에서 조사한 등록금, 주거비 제외한 대학생 1달 생활비 평균
: 33.4만원 (대학내일20대연구소), 66만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40만4,644원 (알바몬)

부모님 용돈으로는 조금 벅찬 가격입니다. SYNERGY는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4대 NO-no

1. 불합리한 학점 제한으로
장학금 배정에서 탈락하기

2. 불필요하게 호화로운
기숙사 때문에 자취방만한
기숙사비 부담하기

3 부담스러운 학식 가격
때문에 끼니 대충 때우기

4. 비싼 교재비 때문에
신학기마다 지출 초과하기

이렇게
바꾸겠
습니다

→ 학점 걱정 없는 장학금
확대로 마음 즐기며 학교
다니지 않기!

→ 기숙사비 인화로
불필요한 운영비 부담 NO!

→ 3500원 한식 메뉴 추가로
든든하고 부담없는 한 끼를!

→ 조합원 할인 받고
신학기 교재 부담 덜기!

학점 걱정 없는 장학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문고 장학금 확충

공약 설명 |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지만 소득분위나 학점 제한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공약

Petition Scholarship Expansion

Scholarship for students who fail to be in the income level, or have GPA limitations.

우리 학교에 신문고 장학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06년 만들어진 신문고 장학금, 학점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이지만 알고 있는 학생들도 드물고 선발 과정도 불투명합니다. (1년에 두자리수의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추측, 학교 홈페이지로 미공개)

자기소개, 타 장학금 선발에서 탈락한 경위, 미래계획 등
(성적은 선발기준에 없으며, 소득분위나 가계곤란 같은 경우 희망하는 본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님.)

지원서 제출

100명 선발

신문고 장학금

100만원 수여

현 비전장학금 예산과 통합하여 학생복지처 기금으로 마련

학생복지처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매학기 100명 선발

SYNERGY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매 학기 수여자를 100명(100만원씩)으로 늘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기숙사비, 낼 수 있습니다.

우정원 기숙사비 재논의

공약 설명 | 한 달 36만원인 우정원 기숙사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리는 것.

Renegotiation of Woojungwon Dormitory Fee

Reducing Woojungwon Dormitory fee to a proper level.

2012년 10월, 학생들의 기숙사 신축 요구가 있었고, 끝내 2014년 10월, <우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축 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51대 총학생회 Solution과 학생 대표자들의 문제제기에도 학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SYNERGY는 우정원 기숙사의 합리적인 가격 인하(공공기숙사 수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공간
위원회 구성

기숙사비
책정

기숙사비
인하 요구

+ 우정원 학부생 입사 보장

<신촌 주민들의 기숙사 반대 시위에 대한 <SYNERGY>의 입장>

지난 10월 신촌 주민들이 연세대·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여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생존권 투쟁과 이익 집단의 떼쓰기라는 상반된 반응 사이에서, 무의미한 갈등을 줄여나가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생협 TOP3 고를샘, 슬기샘, 라온샘을 시작으로

생협조합원 할인제도

공약 설명 | 학내 생협 매장의 가격을 조합원들에 한해 할인하는 제도.

Yonsei Co-op Discount

Discount on co-op goods for partners.

약 60%

..... 최근 생협 조합원 가입률

왜일까? 비싼 가격으로 낮은 선호도

재고 부족과 부족한 혜택으로 이용률이 낮은
슬기샘(학관 내 서점)



슬기샘

학내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학식 가격



고를샘



라온샘

"조합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해야 할
생활협동조합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SYNERGY는 생협 매장들의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할인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할인제도

기존 5500원 조합원 : 5000원
 비조합원 : 6000원



고를샘 라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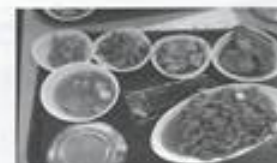
※책값 20% 할인 지원을 얻어내려고 했던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은 20억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생협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수익을 맞추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 plus



3500원 한식메뉴 신설

푸짐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호평 중인 청경관 한식메뉴!
3500원 한식메뉴로 재탄생시켜 신촌/국캠 대표 식당에 만들겠습니다.



학생식당 모니터링 전문화

현재 학생식당 모니터링 요원은 메뉴 시식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메뉴 개선이나 가격 인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ERGY는 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식당 회계 공개 요구, 매출
보고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감시

식당 메뉴
모니터링

+

식당 회계
감사

=

모니터링 전문성 UP!
식당 운영 투명성 UP!
회계 정상화로 가격 인하까지!

조합원, 비조합원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가격 산정
(총학생회 + 생학위 + 생활협동조합)

시범운영

라온샘

고를샘

슬기샘

결과 보고 후 타 매장으로 확대



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 내기!

생협 인턴제도 신설

공약 설명 | 학내 생협 매장의 인턴으로 2명을 고용하여 등록금의 50%~100% 가량을 급여로 제공하는 것.

Interns hired for Co-op

Hiring 2 interns for Co-op shops, and paying 50% of tuition fees as a wage.

근로장학금제도에 생협인턴제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협조합원

사회적 경제

생협 운영

이자 3학기 이상 재학한 자

에 관심이 있는 자 00명 고용

HOW? 생협 전출금을 늘리고, 생활장학금 예산과 절충하여 예산 확보
생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

+근로장학생 시급 인상 요구

	2014년	2015년
최저시급	5210원	5580원
근로시급	6000원	6500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SYNERGY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근로장학생 시급도 6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근로장학생 원클릭원뷰

신청시기도, 신청공지도 다 천차만별인 근로장학생 정보, SYNERGY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

생협근로

단과대
근로

-모집시기
-신청방법
-간접모집

학내 근로장학금 정보 여기 다 있네~

등심위, 이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5 SYNERGY 등심위 전략

<Tuition fee Deliberation Committee> Strategy



올해 연세대학교는 백양로 프로젝트와 신경영관·공학관 증축 등을 위해 무리한 건축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내년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제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총학생회의 강력한 태도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SYNERGY의 등심위 전략

1

법인 이해
관계자
등심위 참석

학생 측에서
회계담당위원
선임

2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수익(금융투자수익)
학생들에게 반환

<대학 유가증권 투자손익 현황>

순위	1	2	3
학교명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투자원금	13,799,996	200,693,504	7,005,440
평가손익률	38.48%	2.27%	2.10%

-> 45억 6305만원의 수익금

(2014년 2월말 기준, 단위 천원, 출처:교육부)

더 나은 일상, 당신과 함께 SYNERGY!

통학생들의 고민, 듣겠습니다. 자취생들의 고민, 듣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고민,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들려주세요. SYNERGY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에 주목하겠습니다.



1. 셔틀버스
신촌역 복구

2. 통편집
버스

3. 집보샘
시즌2

4. 아르바이트생
지킴이

5. 안심택배
보관함

6. 동문길
가로등 설치

7. 놀라운
2층침대



교내 셔틀버스, 우정원에서 신촌역까지!

셔틀버스 신촌역 노선 복구

공약 설명 | 신촌역까지 운행 가능한 셔틀버스 노선을 확보하고 캠퍼스 전역으로 셔틀버스를 확대하는 공약

Sinchon Station Shuttle Bus

Running shuttle buses again from Sinchon Station to Shinchon Campus



새로 추가되는 셔틀버스 노선

현재 신촌 캠퍼스 셔틀버스 노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높은 수요를 보였던 신촌역 운행 노선은 연세로
공사로 인해 전면 중지된 상황입니다.

**SYNERGY는 새천년관, 음악대학, 의치간대학
및 신촌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신촌역 → 새천년관 셔틀버스 운행 예시

	신촌역	새천년관
08	33 48	
09	03 18 33 48	15 30 45
...		
19		00 15 30 45

SYNERGY가 준비한 + 1

경복궁 셔틀버스 1대 증차

Increasing Gyeongbokgung Shuttle bus

가장 번잡한 8시 40분~55분, 9시 40분~55분에 1대에 탑승하는 인원은 무려 75명(버스기사님 인터뷰 중)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탑승 인원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는 학생들을 위해 SYNERGY는 1대 증차를 통해 대기시간을 2분으로 줄이고 안전권,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전한
버스

친절한
버스

셔틀버스 과도 인원으로
인한 안전 문제 제기

광고 펀딩 방식
으로 1대 증차.
오후에는
신촌역 방향
으로 운행



통학 시간대 경복궁 지역 셔틀버스 안 모습



환승을 통편집! 피로를 통편집! 통학을, 편하게, 집에서!

통.편.집 버스

공약 설명 | 수도권 및 서울 외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통 통학버스를 만들어 운행하는 공약

School Bus

pledge to run school buses for students living in outer Seoul and Capital areas

신촌캠퍼스로 통학하는 경기, 인천 학생들은 통학시간의 과도한 소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YNERGY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통편집 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출근길 막히는 버스
꼭 찬 지옥철
경기, 인천 지역의 말 못하는 고민
<대.다.나.다.통.학>



<통학을, 편하게, 집에서!>

통편집
BUS

교통비를 통편집! <운영비 로드맵>

버스 광고 등을
통한 편당

학생들이
부담하는
요금

학생회비 혹은
학교 예산으로
인건비 및 기타
유지비 충당

+

남는 수익을 적립하여
학기말에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

허기를 통편집! <아침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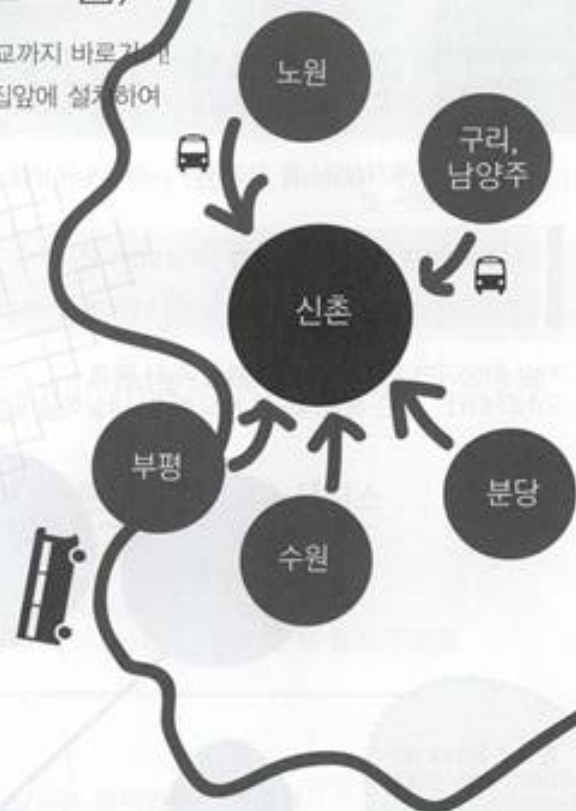
기존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밥 한끼 하실래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비영리단체 <도시락&톡>과의 연대를 통해 버스 안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승을 통편집! <노선 로드맵>

노선예시 [1안 빠른 버스: 거점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바로가게!
2안 집앞에서 학교까지: 정류장을 집앞에 설치하여 학교까지 바로가게!]

노원->신촌	상계역	7:10
	노원역	7:20
	창동역	7:30
	연세대남문	8:40
남양주->신촌	남양주시청	7:10
	금곡역	7:20
	연세대남문	8:40



시행착오를 통편집! <추진 로드맵>

이미 고려대학교, 논프면 도착 등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 대중교통전용차
선 이용 허가 신청

사업자 선정 및
수요조사, 노선
확정(2월)

1학기 1달
시범 운행 후
개선점 보완(3월)

정기
운행화

<통편집버스>로 마음 편히 통학하세요!

외국 유학생, 예비군, 국캠미도 쉬운 신촌에서 집 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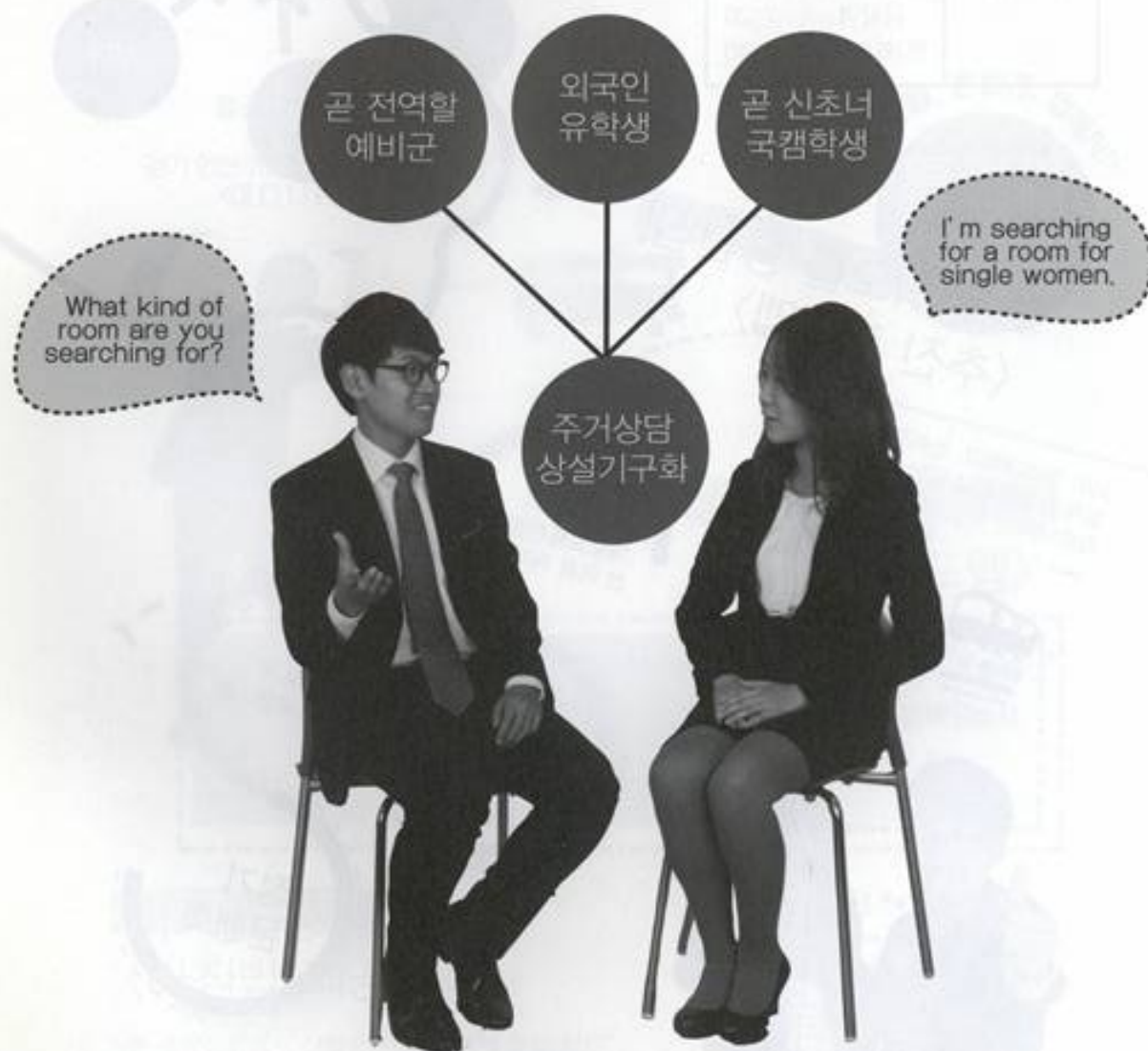
집보샘 시즌 2

공약 설명 | 주거상담사를 학교에서 고용하여 학생들 대상으로 자취, 하숙 정보 제공 및 주거 계약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Housing Counseling Season 2

Hiring 1 Housing Counselor by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to provide students with housing information and help housing contracts.

지방 학생이면 누구나 고민해 봤을 주거 문제.
SYNERGY는 기존 상담제도의 제도화 및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학우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취업팀 사무실 내 배치 영어 및 기타 외국어 가능한 주거상담사 고용 근로장학금 수여

아르바이트 고충 해결사!

아르바이트생 지킴이

공약 설명 |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르바이트, 인턴십, 대외 멘토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아카이빙하여 제공하는 제도

Part-time Help Service

A pledge to protect part timer's rights and provide information on part time job, internship and out of school mentorship.

연세대학교 학생이라고 과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혼자 해결하기 막막한 여러 문제들, SYNERGY가 돕겠습니다.

SYNERGY가 책임지는 든든한 3개 지킴 서비스

노무사 무료 상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입니다.
SYNERGY는 자문노무사를 통해 노동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돕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캠페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고용주-아르바이트생 간의 보다 합리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강연회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맞춤형
노동법 강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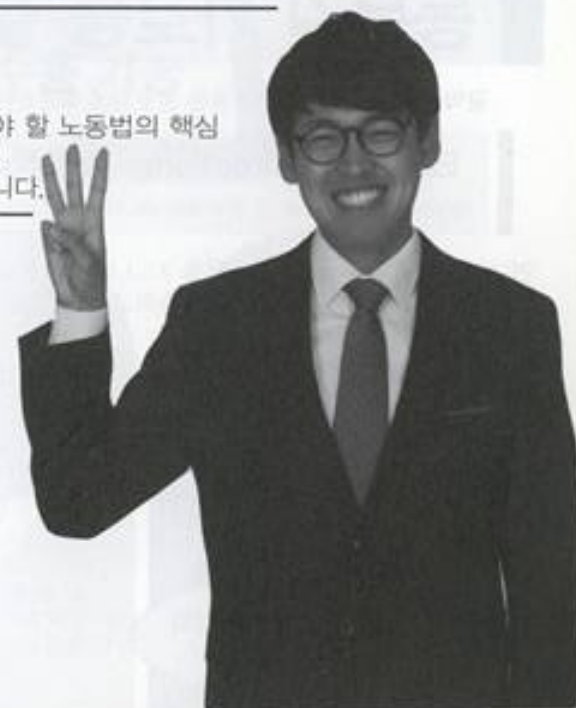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인턴 멘토링 아카이빙

SYNERGY가

준비한 +α

각종 아르바이트, 인턴십,
대외 멘토링에 대한
정보를 아카이빙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택배 받기

서문에도, 안심택배보관함

공약 설명 | 서울시의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확장하여 서문 자취생들이 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Safe Storage Box

Expanding Seoul Metropolitan City's Women's Safe Storage Box system for students living in West Gate area.

혼자 있어 문을 열어줄 때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바쁜 생활로 택배수령이 어려우신가요? SYNERGY는 자취, 하숙생 등 1인가구가 많은 서문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후보지

연희
교회

신촌동
주민센터



(사진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시가 2013년부터 도입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는 공영주차장, 교회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남성도 이용가능하며 24시간 연중 내내 운영됩니다.

이제 밤길에도 안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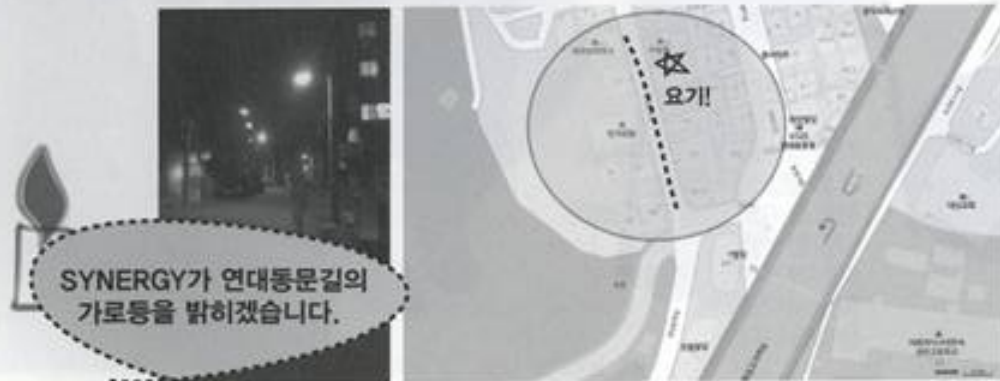
동문길 가로등 설치

공약 설명 | 보행자 가로등을 동문길에 확충하는 공약

East Gate Streetlamp Installation

Increasing number of streetlamps in East Gate Area.

연대동문에 사는 학생들은 동문을 지나 어두운 연대동문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SYNERGY는 서대문구청에 건의하여 연대동문길 가로등을 확충하고 기존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겠습니다.



SYNERGY가 연대동문길의
가로등을 밝히겠습니다.

늘라온이 2층 침대라면?

늘라온 및 학내 휴식 공간 확충

공약 설명 | 학내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공약

Resting Spaces

Pledge to expand rest spaces for students

학내 휴식 공간, 충분한가요? 늘라온의 소파는 부족하고,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은 빈 소파를 찾아 도서관 곳곳을 헤매야했습니다. SYNERGY는 학내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여성, 남성 늘라온에
2층 침대 배치

기존 14명(여성 늘라온 기준)
→ 28명 수용 가능

하나, 늘라온에
2층 침대 배치



둘, 신축 건물에
늘라온 확충

신축 건물에각 단과대
회장이 참여하는 공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도 학생
의견 반영하여 공간 구성

셋, 학술정보원
U-lounge 개편시
늘라온 및
테이블 확충

U-lounge
개편을 위한
TFT 구성
(학술정보원
에서 계획중)

더 나은 학사제도, 당신과 함께 SYNERGY!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학사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SYNERGY가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재수강 6.20
총장합의안
이행

2. 수강신청
예약순번제

3. 희망과목
리스트 분석 및
반영

4. 졸업학기
의무수강제
폐지

5. 강의
중간 피드백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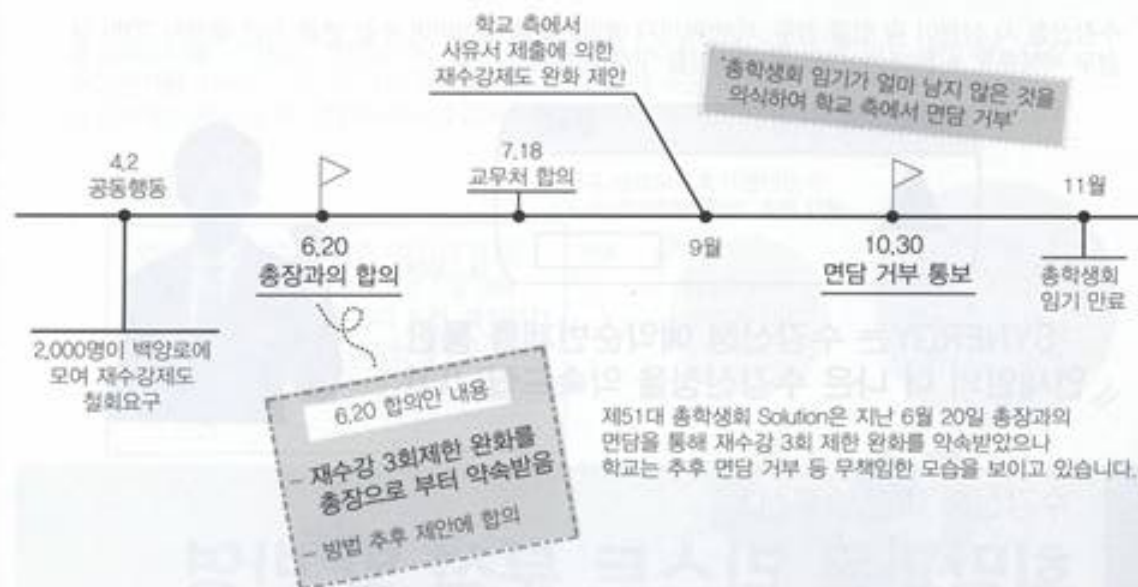
재수강 제한 재논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수강 6.20 총장합의안 이행

공약 설명 | 6.20 총장합의안 이행을 요구하고 신문고 제도를 확대하여 재수강 문제를 완화하는 공약

Fulfillment of 6.20 President Agreement on Retaking Classes

A pledge to fulfill 6.20 President Agreement to alleviate limiting retaking to 3.



SYNERGY는 6.20 합의안 이행 요구 및 신문고 제도 도입을 통해
재수강 문제를 반드시 완화하겠습니다!

신문고 제도는 무엇인가요?

신문고 제도란 사유서 제출 형식으로 학사제도, 졸업 요건, 장학금 등 학교 생활 전반에서 제도적 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학생복지처에 직접 상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신문고 장학금, 비전 장학금 등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안으로도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무처, 생협, 학생복지처 등 여러 부처에 신문고 제도를 설치하여 중요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복지처장 추천으로 재수강 제한을 완화시킨 학생들의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수강 조건을 유연하게 만드는 근거로 삼겠습니다.

수강신청 횟수 확대, 학점포기제 도입 등 다른 대안도 존재하지 않나요?

교무처에서 재수강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점인플레 현상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제한 횟수를 3회에서 4회, 5회로 늘리거나, 학점포기제를 도입하는 것 등은 학점인플레 현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학교 측 입장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수강 제한제도가 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과 불필요한 불안감을 야기시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수강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대란 솔루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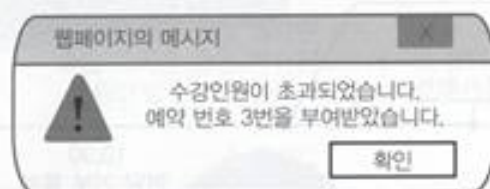
수강신청 예약순번제

공약 설명 | 수강신청 시 수강인원이 꽉 찬 수업마다 클릭 순으로 10번째 학생까지 대기번호를 부여하여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공약

Class Reserve List

Creating a 10 person waiting list for students applying for a full class.

수강신청 시 정원이 꽉 찼을 경우, 10번째까지 예약번호를 부여하여 수강 변경 기간 때까지 TO가 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시화면

SYNERGY는 수강신청 예약순번제를 통한 연세인의 더 나은 수강신청을 약속드립니다!



수강신청 대란 솔루션2

희망과목 리스트 분석 및 반영

공약 설명 | 희망과목리스트를 기반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를 파악하고 TO 개설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공약

Wanted Class list

Creating a wanted class list based on demand for major classes, and implementing it on the class size.

STEP 1

희망과목리스트
수요 분석

STEP 2

각 단과대학 · 학과
사무실 및 학생회와
자료 공유

STEP 3

전공과목 TO
개설에 반영

제51대 총학생회 Solution은 전공과목 TO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과목리스트 수요 반영의 도입을 요구해왔으며 현재는 학사지원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SYNERGY는 지속성 있는 대화를 통해
희망과목리스트 반영의 제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취업 준비도 바쁜데 수업까지 들어야 된다니?

졸업학기 의무수강제 폐지

공약 설명 |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공약

Abolishing Last Semester Requirement

Abolishing the requirement to take at least 1 point of class in the semester before graduation.

졸업예정자를 우대하는 기업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불가피하게 정규학기 후 바로 졸업하는 대신 졸업연기를 선택합니다. 2013년 졸업을 미룬 교내 학생 수는 3141명.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졸업하려는 학기에 꼭 1학점이라도 수강하도록 강제하는 엄격한 졸업조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칙 제51조 (졸업의 요건)

9.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졸업연기 신청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음 놓고
취업 준비하고
싶어요"
TT TT

"주5일제 인턴에
지원하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때문에 지원조차
못했어요"



< 어느 초과학기생의 막학기 시간표 >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2					
3					
8					
9			UCL 1117-01-11 발음PNA기		
10			UCL 1117-03-11 발음PNA기		

불필요한 졸업 학기 의무수강제,
SYNERGY가 폐지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졸업학점을 다 채웠더라도 필수 영어인증시험 점수를 내지 않으면 졸업을 미룰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만들어가는 강의

강의 중간 피드백 제도

공약 설명 |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학기 중 피드백을 후반부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Midterm lecture feedback

Creating a feedback system in the middle of the semester, so it can be realized in the second half of the semester.

학기말 강의평가는 한 학기 동안 그 강의가 어땠는지 평가하는 건데
학기중에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을까?

16주 동안이나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SYNERGY는 중간고사 기간 피드백 제도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학기 중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지원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화

STEP 1

중간고사 기간
피드백 실시

STEP 2

피드백이 반영된
후 더 알차진
수업시간!

STEP 3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에서는 이미 학기 중 강의 피드백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YNERGY가 준비한 +α
기존의 강의평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문제상황

개선방안

모호한 강의평가 문항



문항 추가 및 구체화

수강신청 전까지만 열람 가능



열람 기간 연장

더 나은 캠퍼스, 당신과 함께 SYNERGY!

올해 2월 부산외대 OT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촌캠퍼스 또한 대규모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SYNERGY는 여러 캠퍼스 시설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캠퍼스의 디지털화로 편리한 모바일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1. 학내 신축
공사 관련

2. 모바일
캠퍼스 구축

3. 학생행사
책임자 안전
교육 실시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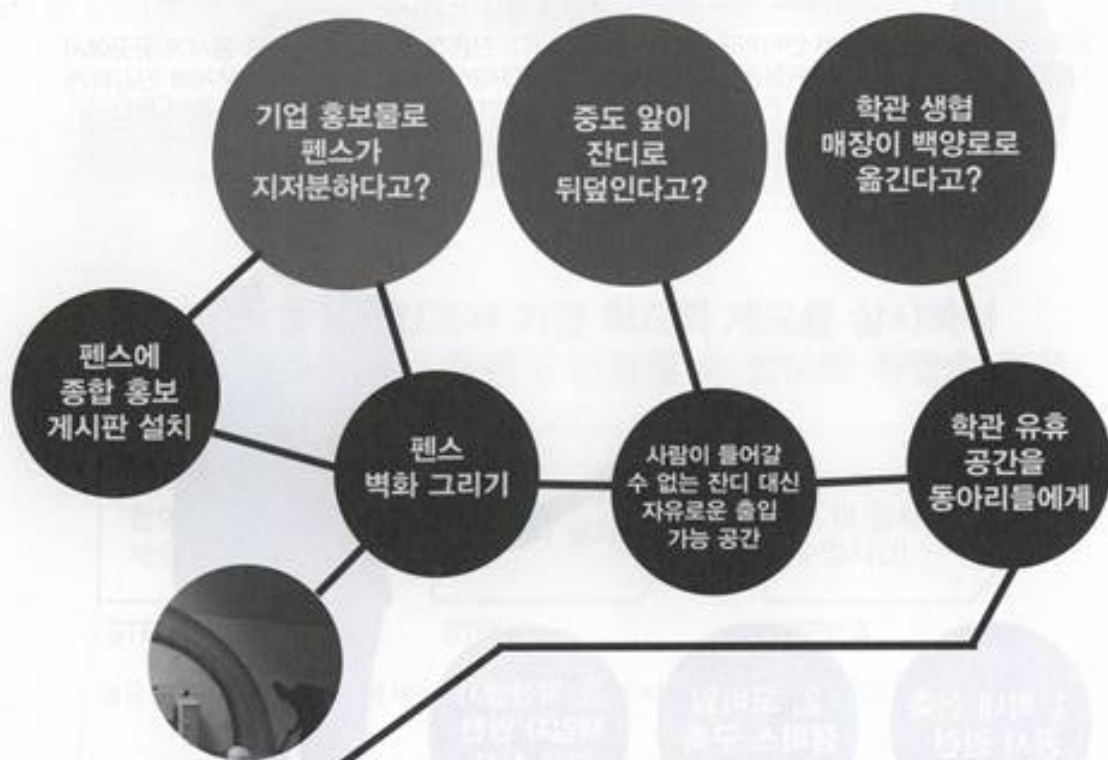
학내 신축공간 관련 공약

공약 설명 | 학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재정, 공간,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

Safe Guard for School Constructions

A pledge to check and deal sensitively constructions for fiscal, spatial, and safety problems.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100억 : 백양로프로젝트에 들어간 생협 적립금

● 학생회관의 기존 매장(식당 외 하안샘, 사진샘, 알뜰샘, 보람샘 등)이 백양로 지하공간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그로 인해 학관에 유휴공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남은 공간을 학생 자치공간(동아리방, 연습실, 세미나실)

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로써 아직 동아리방을 받지 못한 동아리 및 학회들에게 방이 주어질 수 있으며 아울러 합주실과 24시간 세미나실도 균형 있게 요구하겠습니다.

*약 300평 확보(공간위원회 추정)

3가지 약속

공대타워

과학관

신경영관

공사

완공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감시
공사중 과도한 소음, 안전사고 방지

정문 앞 덤프트럭
운행중, 주의요망

안전한 캠퍼스 조사를 통해
교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정

등록금 회계와 건축 기금의 확실한 분리

공간

신축 공간구성위원회에 각 단과대(상경대, 공대, 이과대)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신경영관에
경영대학 학회들을 위한 학회방 구성

노선 변경 후 셔틀버스와 보행자 사이의
충돌이 예상되는 서문 입구에 보행자 길 표시



공대타워 건설로 일시적으로 폐쇄될 공A지하
자치공간을 대체할 공간 제공 (예: 컨테이너 박스)

TECH와 EDU가 만나면 SYNERGY!

모바일 캠퍼스 구축

공약 설명 | 전 캠퍼스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공약

Installing mobile campus

turning the campus system into a digital and mobile system

제대로 된 연세앱 찾으시나요? 학술정보원의 전 캠퍼스 디지털화 사업인 S-Campus 사업이 곧 시행됩니다. SYNERGY는 제51대 총학생회의 자치활동 지원프로그램(연세콩) 및 학사정보 시스템을 모바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1 스마트학생증

종도, 강의실 출입, 전자결제를
편하게 CHECK!

A
스마트학생증

006 자치활동

총학생회 및 동아리 자치활동, 문화행사,
S-membership정보를 한눈에 CHECK!
연세콩 도리어 실현

F
자치활동

002 스케줄러

학사정보, 개인시간표, 공지사항을
한눈에 CHECK!

B
스케줄러



MOBILE
YONSEI

E
셔틀버스

005 셔틀버스

신촌/국립/한주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한눈에 CHECK!

003 식당정보

식단표, 가격, 혼잡도를
한눈에 CHECK!

C
식당정보

D
YSCEC

004 YSCEC 연계

와이색을 핸드폰으로도 자유자재로 수업 자료,
조모임 게시판을 한눈에 CHECK!

학술정보원이 약속하고
SYNERGY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폰 안의 또 다른 캠퍼스

S-Campus App 선택적 푸시 알림 도입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관심사만 골라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정보통신지원팀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TECH와 EDU가 만나면 SYNERGY!

더 SMART한 학교생활을 위한 3SOLUTION

1. 수업교재 e book license 확충

무거운 책 들지마세요~
집에서 e book으로!
도서관에서 e book reader로
편한 학교 생활!



2. 학교포탈 모바일 호환성 문제 개선

언제까지 컴퓨터로만 파일을 올리고,
숙제를 내야하지?
연세포탈 학적을 폰으로도 제대로 보고 싶다!
와이색을 제대로 모바일로 하고 싶다!
+수강신청 서버 예산 및 인력 정보 공개 요구



3. 우리 학교에도 동영상 강의를 확충하자! KOCW(대학 공개 강의) 서비스 확대

군
복무중

예비군
훈련시

취업
준비생

- KAIST와 울산과기대 사례 : 동영상 강의듣고 수업시간엔 토론수업!
- 취업준비, 아픈 날, 부득이하게 결석한 날에도 걱정없다!
- 예비군 훈련, 군 복무 중에도 학업 계속하기!

+ KOCW는 OCW(Open Course Ware)의 한국판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학부 교육
공개와 강의 공개(OCW)가 기폭제가 되어 전 세계 대학들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려대 경희대 영남대 등 전국 40여 개 대학의 협조로 강의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학생 행사의 안전을 위해

학생행사 책임자 안전교육 실시

공약 설명 | 학생 안전 메뉴얼을 채택하고 확대간부수련회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공약

Student Event Safety Education

A pledge to hold Safety Education sessions in the 'Representative Conference'

대규모 학생 행사의 만약을 위합니다. 학생 안전 메뉴얼을 채택하고 매년 2월 연세대학교 학생대표자들이 진행하는 확대간부수련회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설, 교통, 보험 가입 등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안전 메뉴얼(가)	
목적	대학 및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행사 시 사전 및 사후 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사항.
기본방향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및 학생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 전 학교는 책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메뉴얼에 따라 안전사항을 확인한다.
교내행사 체크리스트	참가자들에게 대피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행사 책임자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가?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체계가 확립되었는가?
	관할 소방서에 행사 일정 및 규모가 통보되었는가?
교외행사 체크리스트	행사 참가자들에게 대피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숙박시설 지자체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관할 소방서에 행사 일정 및 규모가 통보되었는가?
	행사 책임자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가?
	계약에 사고시 책임이 명시되었는가?
	숙박시설 보험가입이 되었는가?
	단체활동 보험 가입이 되었는가?
	해당 장소에 지자체의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확대간부수련회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가

새터, 오티, 연고전 등의
학생 행사 시 메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 점검

숙박시설의 적정인원수, 교통수단의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적격여부를 판별한다. 또한 지역 소방서 등 안전주체와의 연락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학교 본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한다.

더 나은 문화, 당신과 함께 SYNERGY!

아카라카, 연고전만이 우리학교 문화는 아닙니다.
SYNERGY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1. 릴레이
강연회

2. 연고전
130주년
문화행사

3. 시너지
교실

강연 & 토론문화를 되살리자

릴레이 강연회

공약 설명 | 명사들을 초청해 정기적인 강연회와 학내 이슈에 관한 토론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공약

Relay Speeches

Inviting notable characters to hold regular Speeches.



**토론회
및 간담회**

학교, 사회, 문화에 대해서 연세인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예) 자치도서관에서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 열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동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수민 MBC 예능국 PD
(의생활학과 95년 졸업)

강연회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국어국문학과 81학번)

운동경기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행사로!

연고전 130주년 문화행사

공약 설명 | 연고전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공약

Yonko Games 130th Anniversary Culture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130th anniversary of Yonko Games, SYNERGY is planning a culture event.

연극 연고전



2005년에는 연세대 극예술연구회와
고대극회가 준비한 기념공연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두 학교의 동문,
재학생의 화려한 연극 공연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고전 마라톤



재학생, 교수, 동문이 참가하는 연고전
마라톤으로 같이 땀을 흘리며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의 바뀌들기



고려대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훌륭한
강의들을 서로 교환하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재능에 나눔을 더하면, SYNERGY!

시너지교실(a.k.a.야매교실)

공약 설명 | 연세인 스스로가 강사, 수강생이 되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없이 재능을 나누는 공약

Amateur Class

Creating Classes for /students to share talents and skills by becoming teachers and students of creative classes.



사진을 좋아하는 OO의 DSLR 기초 교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드로잉 교실



버스킹 동아리 출신 OO의 기타 교실

야매여도 괜찮아

SYNERGY는 연세인에게

동아리, 학회와는 다른 새로운 학생자치문화 형성을 약속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없는 재능 나눔을 약속드립니다.

재능과 끼가 넘치는 연세인! 새로움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연세인!

SYNERGY는 여러분을 위해 시너지 교실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사모집
및 강의계획서
검토

STEP 01

자치강의
지원/홍보

STEP 02

수강희망생
접수

STEP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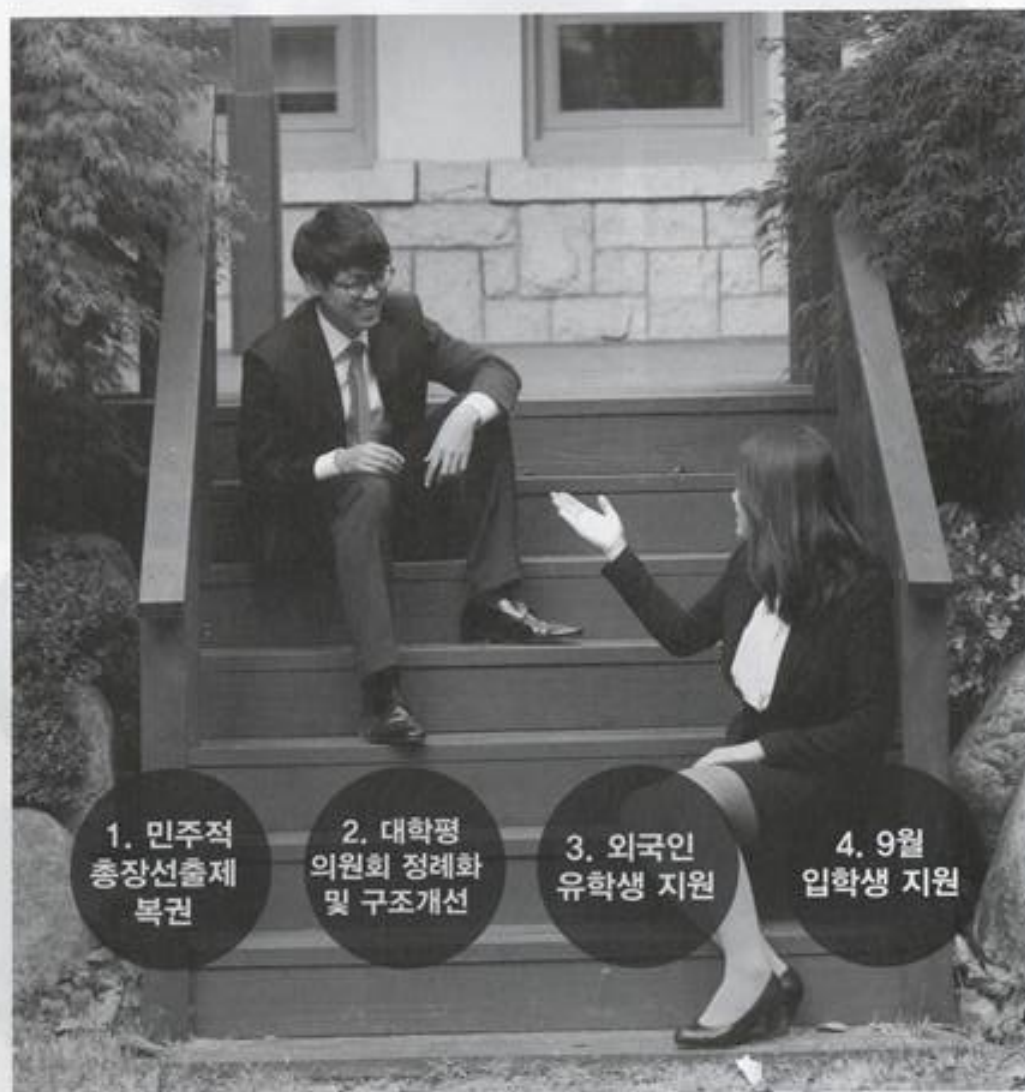
자치강의
진행

STEP 04



더 나은 제도, 당신과 함께 SYNERGY!

2015년은 우리학교를 이끌 다음 총장을 뽑는 해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SYNERGY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칙을 개선하겠습니다.



1. 민주적
총장선출제
복권

2. 대학평
의원회 정례화
및 구조개선

3. 외국인
유학생 지원

4. 9월
입학생 지원

2015년은 총장 선거의 해!

민주적 총장선출제 복권

공약 설명 | 총장 후보자 추천과 인준과정에서 학생참여를 확보한다.

Democratic Presidential Elections

A Pledge to improve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by including students.

2012-2014년 정갑영 총장과 함께한 3년, 행복하셨나요?

토목공사 · 자유전공페지 · 재수강 3회 제한과 함께한 3년, 만족하셨나요?

2015년은 정갑영 현 총장의 마지막 해이자, 다음 해 총장을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손으로 학교를 진정 위하는 총장을 뽑아야 합니다. SYNERGY는 총장선출제도에 직선제 요소와 정책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총장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학내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교수의 입장을 꼭 반영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유명무실 대평!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정례화 및 구조 개선

공약 설명 | 주기적으로 열리지도, 학내 사안을 논의하기도 아직 적합하지 못한 대학평의원회를 개선하는 공약

University Assembly Pledges

Regularizing and normalizing the University Assembly to negotiate school issues.

드디어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그러나 구성원의 20%도 안 되는 학생의 목소리는 아직도 작기만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개선점 3가지

A 선출방식 변경

발전
기여자 후보를
학생들이 선출 후
총장 임명으로
변경(대학평의원회
임기는 2년이기때문에
2016년부터 적용)

B 정례화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는 대학평의원회.
다양한 학내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대학평의원회의 개최를 통해
학내 이슈를 시의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C 자료제출 조항마련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 하는
대학평의원회.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의무 제출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뭔가요?

제2조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원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총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완료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중)



외국인유학생도 행복한 학교

외국인유학생 지원

공약 설명 | 외국인유학생회에 봉사장학금을 신설하고, 외국인유학생과 한국학생 간 교류 튜터링을 신설하는 공약

Foreign Students Pledges

A pledge to install tutoring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students and service scholarship in the foreign student union

교내에는 2014년 기준 약 20,000여명의 학부 재학생 중 76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재학생이 약 4.0%를 구성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내에는 여러 외국인유학생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장 및 임원들에게 혜택이나 봉사장학금이 전무하여
학생회라는 조직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튜터링이 존재하지만, 학우들의 학업·생활의
어려움은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대학)

	외국인 학생 수						재학생수	외국인 학생수(비율)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소계		
2012	591	83	100	1	13	784	19,006	4.1
2013	585	84	100	1	10	790	19,226	4.1
2014	557	93	107	2	8	767	19,227	4.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유학생회
봉사장학금

+

원원
튜터링

+

영어 공지
확충

외국인유학생회에
국제처가 제공하는
봉사장학금 신설

외국인유학생과 한국학생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서로의 언어도 배우는
'원원(win-win)' 튜터링 신설

등록금 수납,
휴학 신청 등
학교 공지사항
영어 공지 확충

SYNERGY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합니다!

점오, 입학 이후도 책임지는 9월 입학생 지원

공약 설명 | 9월 입학생의 학부 정착을 위해 여름방학 신입생 OT 진행과 학사제도 개선을 책임지는 공약

Pledge for September entry students

Freshman orientation and student policy improvement for summer enrollment students

2012년 이후 9월 입학제도가 신설되면서 일명 '점오학번'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이미 과반 공동체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에서 단위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적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14년도 이후 1년 RC학기를 이수해야만 하게 되면서 점오학번의 학기 이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단과대별 신입생 여름 OT 지원

단과대별 학생회와 연계하여 단과대별 신입생 여름 OT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 제51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점오 OT)

입학처를 통한 단과대별
9월 입학생 수 파악

단과대별 신입생 여름 OT
매뉴얼 제시 및 적극 장려

총학생회 차원의
합동 OT 자료 지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월 입학생 학사제도 개선

2월 입학생과 함께 신촌캠퍼스에서 1학년 2학기 이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9월 입학생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RC학기 대체 이수 및 신촌캠퍼스 내 충분한 기초교양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해 학사지원팀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 현재 2014년도 입학생 학기 이수 >

2014-봄학기	2014-가을학기	2015-봄학기	2014-가을학기
2014년 2월 입학생			
1-1학기(RC)	1-2학기(RC)	2-1학기(신촌)	2-2학기(신촌)
2014년 9월 입학생			
1-1학기(RC)	1-2학기(RC)	2-1학기(신촌)	

< 제도 개선 이후 학기 이수(가) >

2014-가을학기	2014-겨울학기	2015-봄학기	2015-가을학기
2014년 9월 입학생 (RC 대체 프로그램 선택)			
1-1학기(RC)	RC 이수(대체)	1-2학기(non-RC)	2-1학기(신촌)
2014년 9월 입학생 (RC대체 프로그램 미선택)			
1-1학기(RC)	미선택	1-2학기(RC)	2-1학기(신촌)

SYNERGY가 점오학번의 학과공동체,
학사제도 등으로의 정착을 책임집니다.

더 나은 국제캠퍼스, 당신과 함께 SYNERGY!

2014년은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1년 RC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
아직 셔틀버스는 부족하고 학생식당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공동체는 여러 개로 쪼개졌고, RC제도는 여전히 부실합니다.
내년에도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실은 바쁘게 돌아가야 합니다.
SYNERGY가 더 나은 국제캠퍼스를 준비합니다.

국캠_대표

1. 국캠-신촌
셔틀버스
확충

2. 국제캠퍼스
대표자 회의

3. RA
4 Solution

4. 국제캠퍼스
학식 총개선

국캠_제도

1. HE 재수강
제도와 과목
개선

2. 전공기초
과목 신촌/
국캠 동시
개설

3. 피트니스
센터 개선

4. 국제캠퍼스
운동교실
개선

5. 국제캠퍼스
벌점 초기화

국캠_공동체/복지

1. 국제캠퍼스
플리마켓

2. 유희공간
정비

3. 언기도
자치공간
열람실 개방

4. 일일
과방 랜드마크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넓디 넓은 우리 학교, 원캠퍼스인데 가는데만 2시간! 국캠-신촌 셔틀버스 확충

공약 설명 | 국캠과 신촌을 가로지르는 셔틀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M-bus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공약

Inter Campus Shuttle Bus

Resigning the Mbus contract and solving the shuttle bus problem between Sinchon and International Campus.

2014년, 새내기 학생들은 1년 RC제도가 시행되며 국제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며 선배들, 신촌 캠퍼스의 다양한 대학 문화, 동아리 활동과 단절된 대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 신촌캠퍼스를 가는데 꼬박 1시간을 가야했습니다.

셔틀버스 : 50분~1시간
M-bus : 1시간~2시간
* 대기 시간 제외

학교는 원캠퍼스를 주장하며 국제캠퍼스에서의 생활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셔틀버스 예산을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했고, 2014년 2학기에는 셔틀버스 유료화를 제안했습니다.

셔틀버스가 좀 없어도 우리는 원캠퍼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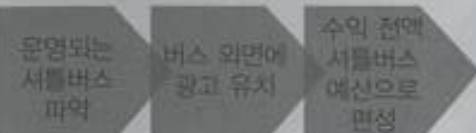
학교 본부

제51대 총학생회는 2014년 2월부터 셔틀버스 증차를 위해 끊임없이 학교와 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셔틀버스 축소라는 학교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감차를 막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2015년, SYNERGY는 지난 1년의 노력에 이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셔틀버스를 확충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 셔틀버스를 축소하려는 학교 본부의 입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SYNERGY는 셔틀버스 펀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증차를 이루겠습니다.

셔틀버스 펀딩 확충



현재 셔틀버스 3대, 청룡교통 관광버스 3대로 총 6대

M-bus 재계약 및 개선

- M-bus 티켓 관련 재계약
-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m-bus 실질적 증차

현재 M-bus 티켓 배부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2014년 셔틀버스 문제 대응

- 2월 11일 셔틀버스 변경안 관련하여 학생처와 면담 진행.
- 2월 14일 학교 측에서 축소안을 제시, 총학생회의 반대 의견 개진으로 축소안 취소, 재논의 진행 결정.
- 2월 18일 총무팀으로부터 셔틀버스 관련 계획을 공유 받고, 증차와 관련하여 현재의 변경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 3월 21일 셔틀버스 및 m-bus 업체인 청룡교통 상무와 면담하여 다음 사항 논의.
*증차 요구, 운행 시간 연장, 줄 서는 위치에 제대로 정차하기
- 5월 8일 국캠-신촌 간 셔틀버스 관련 민원 및 문제 상황 학생처장에게 전달, 총무팀 면담으로 국캠-신촌 간 셔틀버스 예약가능시간 조정 건의.
- 6월 13일 학생처 및 총무팀에 증차 관련 건의를 전달,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 요구.
- 9월 1일 학교 본부가 계속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셔틀버스 축소 시도.
> 총학생회의 강력한 반대로 즉각적인 축소 금지.
> 학교의 새로운 운영 방식 제안 (셔틀버스 유료화, 요일별 차등 배차)
> 증운위를 통해 정기 학운위 발제 의결, 셔틀버스 관련 학생 설문조사 진행 결정.
- 9월 15일 2014년도 2학기 정기 학대운영위원회에서 셔틀버스 유료화에 대한 논의 진행, 정족수 69명에 찬성 0명, 반대 63명, 기권 6명으로 부결.
- 9월 18일 총학생회장이 학생처장과 만나 셔틀버스에 관해 정기 학운위 이후 계획 공유.
- 9월 22일 2014년도 정기 학운위 논의를 정리하여 증운위 입장 논의.
- 9월 29일 총학생회 증운운영위원회의 입장문 발표.

(출처: 제51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보고 중)

제51대 총학생회는 2014년 2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셔틀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그리고 감차하려는 학교의 압력에 맞서 달려왔습니다.

SYNERGY는 말뿐인 원캠퍼스가 아닌 진정한 원캠퍼스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제캠퍼스의, 국제캠퍼스에 의한, 국제캠퍼스를 위한 국제캠퍼스 대표자 회의

공약 설명 | RA, 하우스 자치회, 4년 학생단위, 총학생회가 모이는 국제캠퍼스 회의를 여는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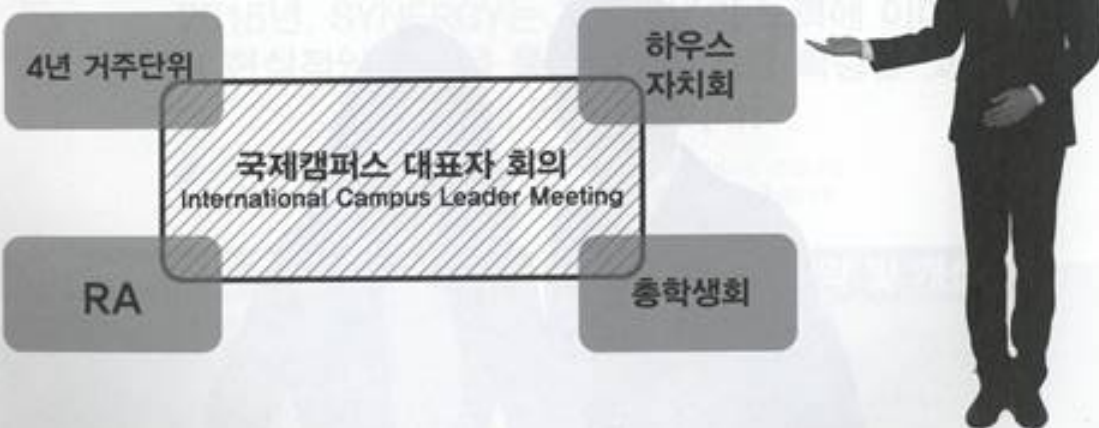
Regular Representative Council

Pledge to open regular representative councils for Residential Advisors, House Union, Majors permanently residing in International Campus, and the General Student Union.



'국제캠퍼스의' 수많은 불편함들,
그동안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어영부영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국제캠퍼스라서, 국제캠퍼스이기에 발생하는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RA, 하우스 자치회, 4년 학생단위, 총학생회가 모이는
국제캠퍼스 대표자 회의를 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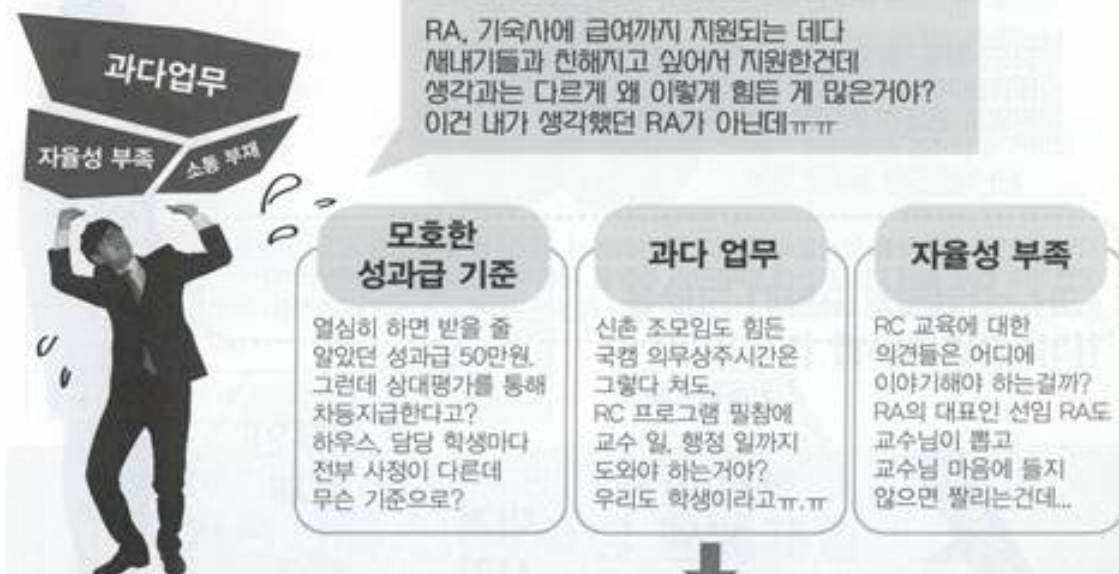


더 좋은 일자리, 더 알찬 RA를 위한 RA 4 Solution

공약 설명 | 성과급, 시간, 복지, 선임 RA 등 현 RA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RA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약

Residential Advisor 4 Solution

A pledge to improve the RA system to enable RA to fulfill his or her potential.



성과급 기준 Remake

- ✓ 성과급 지급 기준 공개
- ✓ 성과급 기준 Remake : RA들과의 회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 의무상주시간 조정
- ✓ 교수, 행정적 업무 배제

- ✓ RC 교육원과 업무 영역 명확히 합의

RA 업무경감

RA가 뽑는 선임 RA

- ✓ RA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선임 RA를 RA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바꾸겠습니다.

- ✓ 모든 RA들이 하우스를 넘어 함께 RC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회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RA 협의체

약속을 실현으로! 제51대 총학생회는 RC 교육원에 RA의 노동권 보장, 선임 RA 선정 개선,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요구하는 3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SYNERGY는 이러한 활동을 발판삼아 계속해서 RA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국제캠퍼스 학식, 한번에 잡아드립니다

국제캠퍼스 학식 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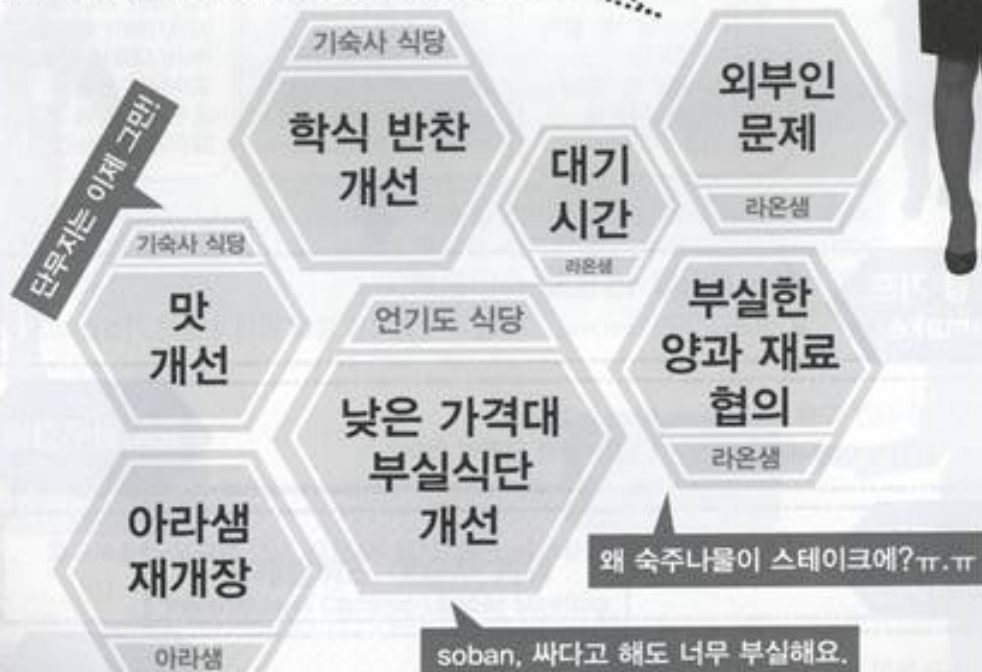
공약 설명 | 국제캠퍼스 학생식당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공약

International Campus Cafeteria Improvement

Pledge to improve general aspects of cafeteria in the International Campus.

맛도, 양도, 질도 점점 떨어져만 가는 국제캠퍼스 학식.
배달음식만 시켜먹자니 지갑이 텅텅 비고...
맛있고 든든한 학식을 먹을 수는 없는걸까?

지역 주민의 이용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제 51대 총학생회 SOLUTION은 생협과의 협의 끝에 피크시간대 외부인의 주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SYNERGY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라온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업체들의 계약 위반으로 아라샘이 폐점했을 때 51대 총학생회 Solution은 푸드 플리마켓, 협동조합 카페를 운영하면서 논의를 진행한 끝에 1기숙사 아라샘을 재개점시켰습니다. SYNERGY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걱정 없는 HE

HE 재수강 제도와 과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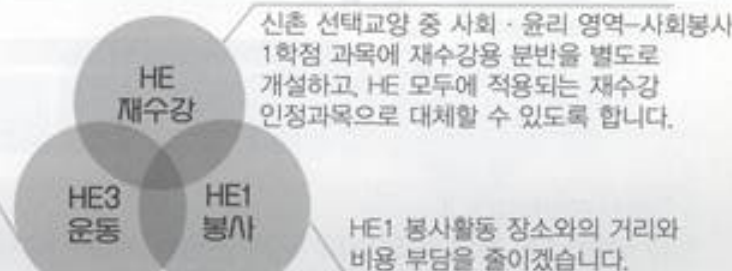
공약 설명 | 신촌캠퍼스에서 HE 재수강 대체를 가능하게 하고, HE 과목을 개선하는 공약

HE retake and subject improvement

Improving HE education for retaking, volunteer classes and women's sports classes.

* HE 재수강 구체적 마련은 2014년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HE3 여자 농구반, 축구반 등의 여학생 분반을 개설하겠습니다.



* HE 개선 이후 예시

종별	학점	영역	교과목명
선교	1	사회·윤리	사회봉사(재수강분반)
선교	1	RC HE1	HE1 연인 (교내)
선교	1	RC HE3	HE3 농구 (여자분반)

올해도 내년도 걱정없는 HE
SYNERGY가 함께하겠습니다!

졸업하러 국캠까지? 이제는 그만!

전공기초과목 신촌/국캠 동시개설

공약 설명 | 전공기초과목을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설하는 공약

Basic Major Subjects to be open in Sinchon/ International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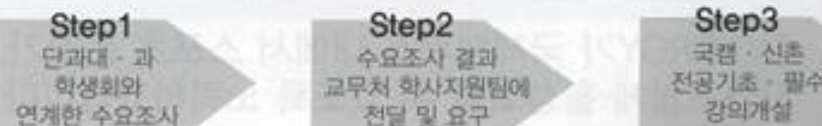
Basic major subjects to be open in Sinchon as well as International Campus

국제캠 미개설	서양 철학의 이해(철학 전공기초)
	동양의 가치와 철학(철학 전공기초)
	독어 독문학의 이해(독문 전공필수)
신촌캠 미개설	이공계 입문·개론 및 실험·실습과목, 공학기초설계
	논리와 분석적 판단(자유전공 전공기초)
대부분의 전공기초, 필수과목은 신촌·국캠 학기별 분리개설	

RC제도가 시행되며 각 과의 전공기초/필수 과목이 국제캠퍼스에서 열린다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수강 인원과 자유 전공/소속변경/이중전공 학생들이 국제캠퍼스에서 수강해야 하는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전공기초 과목이 국제캠퍼스에서 열리지 않아 정작 1학년 학생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전공기초과목 걱정없는 졸업, SYNERGY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1. 국제캠퍼스 1000단위 전공 수업 의무개설
2. 사전 희망과목 수요조사 이후, 전공필수/기초 과목 신촌캠퍼스도 개설



국제캠퍼스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개선

공약 설명 | 피트니스 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트레이너를 확충하는 공약

Fitness Centre Improvements

Extending Fitness Center Service Hours and Hiring More Trainers

나는 토요일에 운동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센터 여성 트레이너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1) 피트니스 센터 토요일도 부분 운영(오후2~10시)
- 2) 여성 트레이너 및 트레이너 수 확충

적극적 피드백을 통해 피트니스 센터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에 맞는 트레이너 수를 확충하겠습니다.



방과후에도 국캠에서 운동하고 싶어요! 국제캠퍼스 운동교실 개선

공약 설명 | 국제캠퍼스에서 즐겁게 배우고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공약

After school Sports Classes

Creating after school sports classes for various sports

같이할 사람들이 있다면 운동장 농구장에서 함께 운동할 수 있을텐데...
멀리가지 않고 주말에 국제캠퍼스 내에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기 종목 뿐만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 등의 강좌도 개설해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1) 종합관 피트니스 센터에 요가/필라테스 등 GX 수업 확대
- 2) HE3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싱/라크로스/스쿼시 등의 강좌 개설
- 3) 여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스포츠 분반 개설

수요조사를 통해 강좌 수/종목/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정/확대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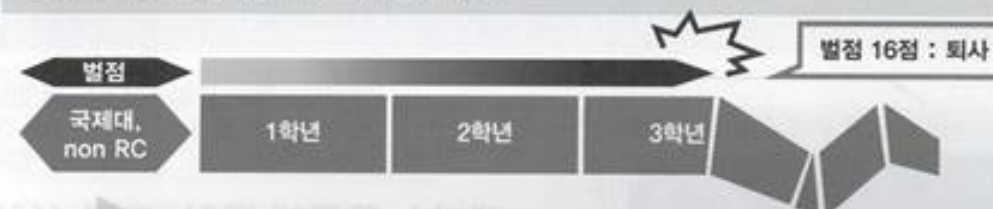
**SYNERGY가 국제캠퍼스 내에서 스포츠 문화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의 4년 거주단위, non-RC들을 위한 국제캠퍼스 벌점 초기화

공약 설명 | 국제캠퍼스 장기간 거주 학우들을 위해 기숙사 상벌점이 1년마다 초기화되도록 하는 공약

Pledges for non-Residential College Students

Defaulting Penalty Points in Songdo Dormitory



국제캠퍼스에서 1년 이상, 4년까지도 살아야 하는데, 벌점이 4년동안 누적된다니??



국제캠퍼스
기숙사 벌점
초기화 시스템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벌점이 1년마다 초기화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신촌의 무악 기숙사, 우정원 기숙사를 근거로 RC교육원에 1년을
기점으로 벌점이 초기화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의 non-RC,
4년 거주단위 학생들이 새롭게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보쌈을 넘어 우리의 손으로 생활을 열다 국제캠퍼스 플리마켓

공약 설명 | 국제캠퍼스에서의 생활 전반의 물품을 직접 만들고, 파고 살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공약

Flee market

Flee markets for students to make and sell food, clothing and necessities.

제51대 총학생회와 함께한 푸드플리마켓.
이제는 학생 자치적으로 만들고, 팔고, 먹고, 사는 유쾌한 공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 생활식

국제캠퍼스 푸드플리마켓,
2015년에도 계속됩니다.

국제캠퍼스 생활주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중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 생활숲

플리마켓의 전 과정의 기초 자금을 제공하여 판매자를 장려하고 순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를 통해
국제캠퍼스 내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 아니라, 국제캠퍼스 학생자치생협카페, 생활협동조합 매장 정상 운영 및 확대 등을 통해
국제캠퍼스 학우들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넓은 캠퍼스에 나 하나 있을 곳이 없다면

유희공간 정비

공약 설명 | 확실히 걸어도 바쁜 캠퍼스 내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공약

Giving Back Free Space

A pledge to give back free space in the International Campus to students.



넓디 넓은 국제캠퍼스!
앉을 곳, 이야기할 곳 없으셨죠?

캠퍼스 곳곳에 벤치, 조명 설치

9시 이후 나와야 했던 언더우드 도서관 불편하셨죠?

24시간 언기도 4층 열람실 운영



텅 빈 기숙사 세미나실 앞에서 돌아서셨죠?
빈 세미나실 당일 예약 가능

불거진 운동장과 트랙 불편하셨죠?

운동장 주변 조명과 벤치 추가 설치



SYNERGY가 유희공간 정비를 통해
도란도란 함께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시험기간, 공부할 곳 없던 당신을 위한 공간!

언기도 자치공간 열람실 개방

공약 설명 | 시험기간 학습공간이 부족한 국제미들을 위해 자치공간을 공부방으로 개방하는 공약

Underwood Memorial Library Reading Area

Turning underground space of Underwood Memorial Library into a Reading Area.

'세미나실 수요가 높은 시험기간에도
예약 시간이 제한돼 이용이 불편했다'
- 독문 14 학우

'세미나실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다.'
- 총괄본부 행정2팀 김창익 팀장

'세미나실을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불편한 제약이 많아 오히려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 UD 14 학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각 단위와 협의하여 시험기간 (시험 1주 + 시험 전 2주)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부방으로 운영
2.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 운영 기간 동안의 사석화 방지, 면학 분위기의 과도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각 단위 혹은 총학생회의 인원 배치, 공간 관리.
3. 현재 강의동 출입 불가능 시간대인 10시 이후를 시험 기간 중 출입 가능 시간대로 변경



〈현재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지하 부근에
각 단위에 제공된 자치 공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세요

지혜관B 고시전용 독서실 개선

공약 설명 | 열악한 시설로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지혜관 B의 시설을 개선하는 공약

Reading rooms for Goshi(state exam)

A pledge to improve facilities of Wisdom B Goshi Reading Rooms.

지혜관B,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시설 유지

- 지혜관 B를 고시 전용 독서실로 사용 확정
- 상시 가능한 이용 신청 시스템 구축

과방이 국캠에 번쩍

일일 과방 랜드마크

공약 설명 | 국제캠퍼스 여유공간에 과반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일일 과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약

Landmark Department Community Rooms

A Pledge to recreate Sinchon Campus Department Community Rooms in the International Campus.



나도 과방에 가고 싶은데...
국제캠퍼스에서는 과 친구들이랑
어디서 만나지?

국제캠퍼스에도 우리만의 과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오늘은 자유관A에서 상경1반 개강파티가 있는 날이잖아!

종합관 1층 로비(spot B)

11월 00일 12-17시 시스템생명공학과 재실
11월 00일 19-20시 신학과 치콜

자유관A 1층 로비(spot A)

11월 00일 18-20시 상경1반 개강파티
11월 00일 15-18시 아시비 국캠나들이

선후배가 함께하는 국캠
SYNERGY를 만듭니다

단위
학생회

국캠
여유공간

과반
공동체

1년 RC 및 Non-RC 거주 단위와 함께 연계하여 종합관 1층 로비, 자유관A 1층 로비,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국제캠퍼스 여유공간에 일일 과방을 개설합니다.
단과대, 과반 학생회가 함께 준비하여 국제캠퍼스 학우 여러분이 과반 공동체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장려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국제 캠퍼스, 함께 '사는!' 국제 캠퍼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 설명 | 장애 학우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반 사항들을 개선하는 공약

Mobility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A pledge to secure mobility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엘리베이터 양보 캠페인 진행



〈꼭 찬 엘리베이터〉

점형 블록 캠퍼스 곳곳에 설치



〈몇 안되는 시각 장애인용 점형블록〉

주요건물 휠체어용 리프트 설치



〈가파른 계단〉

모든 문 양방향 문으로 교체



〈무거운데다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문〉

인천시 저상버스 보급율 50%까지 확대

〈MBN 2011. 09. 27〉



2011년, 저상버스 보급율을
50%까지 확보하겠다고 인천시,

그러나 국제캠퍼스 주변을 지나는
6-2번, 91번, M6724번 어느 노선도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91번 노선에 대한 저상버스
배치 확보, SYNERGY가 해내겠습니다!

1. 무악학사 : 매점을 생활협동조합 직영으로 전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 무악학사, 우정원 : 기존 통금 시간인 1시를 2시로 바꿔 자유로운 출입!
3. 우정원 : 기숙사에 ATM기 설치 / 상본으로 가는 3층 출입구 개방 / 자판기 내 상품 가격을 생협 판매 가격으로 완화

기숙사

신촌 캠퍼스

1. 공A, B 1층 화장실 수리 개선
2. 공과대학 자치공간/도서관 야간 출입 제한 재논의
3. 빌딩승리관 지하 영상편집실을 자치공간으로 상시 개방
4. 음대 카페에 샌드위치, 김밥, 과일 판매

1. 버스킹 존 설치 : 이제는 언제든지 눈치보지 않고 버스킹 공연!
2. 빨래방, 1기숙사 세탁편의점 분실물 관리 및 세탁기 대수 확충
3. 진리관A 엘리베이터 수리
4. MBUS 버스 앱 대기 시간 오류 문제 개선 5. 기숙사 냉장고 안 정기적 청소

국제 캠퍼스

SYNERGY 깨알공약

예비군

1. 예비군 버스 뱅 및 음료 제공
2. 집보생 상담으로 제대 직후 집 구하기
3. 동영상 강의(KOWC) 확충으로 군입대 기간 학력 단절 막기
4. 군인권센터와 연계를 통한 군대 내 인권 문제 대응 메뉴얼 카드 비치

1. 매 중운위 안전 공지
2. 등록금, 휴학 신청 등 학교 중요 공지사항 영어 공지
3. 단과대 학생회 학생회비 사용 결산 보고 독려

소통

보컬트레이닝, 재즈 핑크, 요가... 평소 바쁜 수업이나 비싼 수강료 때문에 선뜻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강좌들! 온스쿨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강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SYNERGY는 온스쿨의 수강인원을 확대하고, 강좌의 종류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온스쿨

농활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고, 농민분들과 으샤으샤 새참도 먹으며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농민학생연대활동!
SYNERGY는 내년에도 농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Solution은 매주 수요일, 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도시락&톡>과 함께 자취,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연세인들을 위해 총학생회실에서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연세인의 든든한 생활을 위해 <도시락&톡>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락 &톡

SYNERGY Solution 이월공약

S멤버십

식당, 헬스장, 댄스 스튜디오까지 기존 온카드보다 다양하고 쓸쓸한 할인혜택! 현재 신촌캠퍼스 33개 업체, 국제캠퍼스 12개 업체와 제휴 중입니다.
S-membership의 혜택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애플온캠퍼스는 Apple과 총학생회의 제휴로 진행되는 학생 할인 프로그램으로, 연세대학교 학생의 경우 Apple 제품을 구매할 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연세인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apple on campus 이어나가겠습니다.

애플온 캠퍼스



여러분의 선택이
연세대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바꿉니다.

2015년 변화의 해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SYNERGY>를 기대해주시요.



더 나은 내일 당신과 함께
SYNERGY

제 5 2 대 총 학 생 회 선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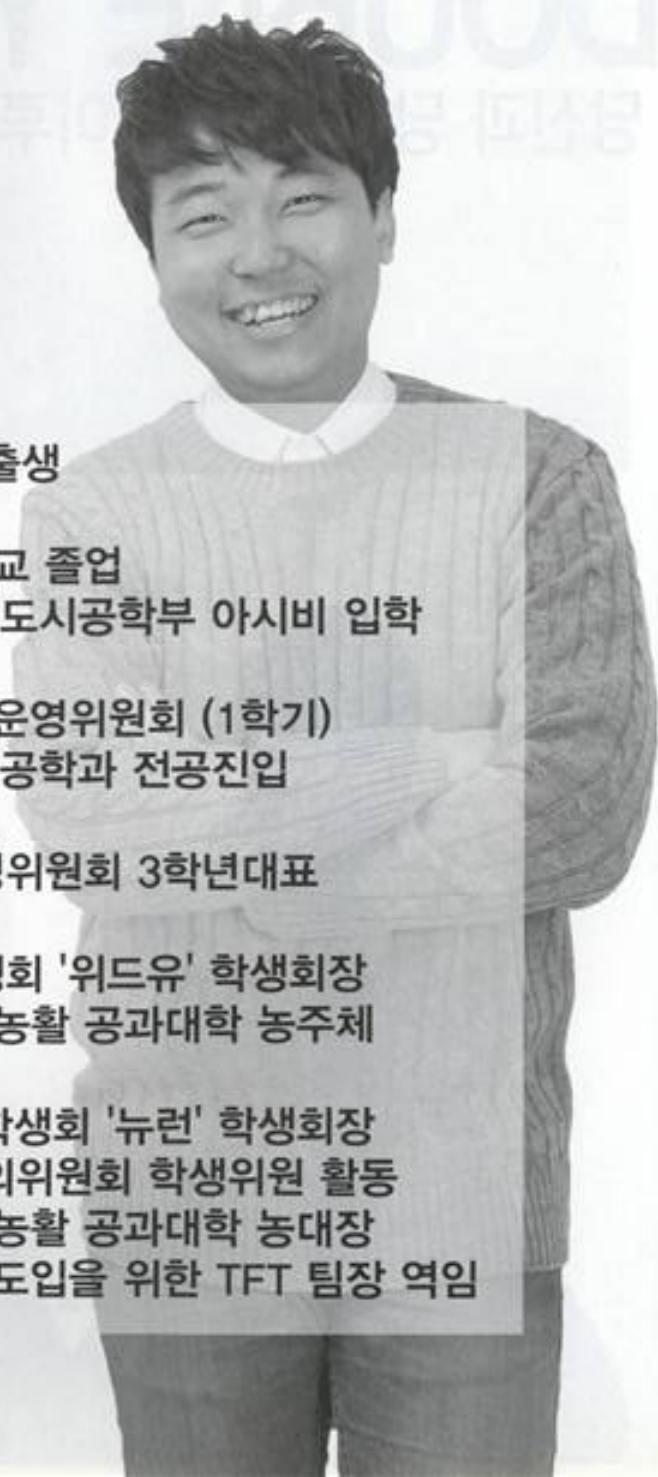
DOUBLE YOU
당신과 당신이 함께 이루는 우리



총학생회장 후보

구한민

도시공학과 10



1991 경상남도 창원 출생

2010 마산제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아시비 입학

2011 제12대 아시비 운영위원회 (1학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전공진입

2012 도시공학과 운영위원회 3학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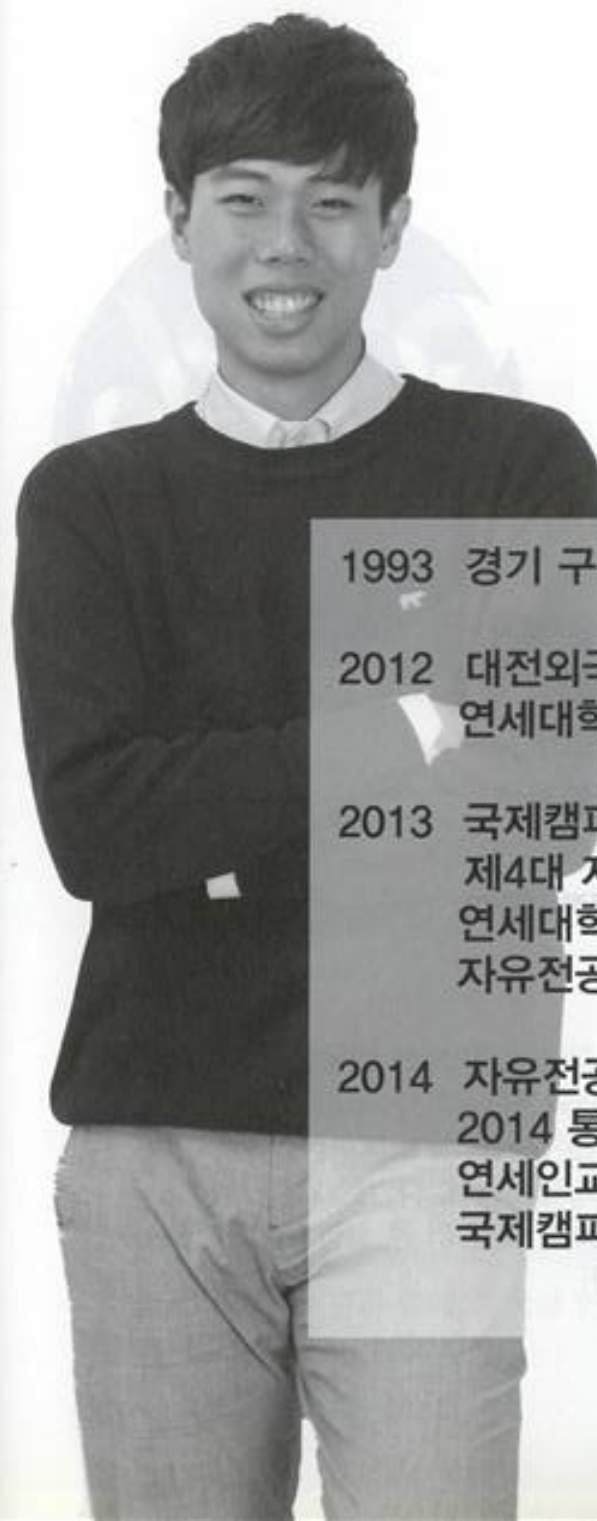
2013 도시공학과 학생회 '위드유' 학생회장
2013 통일연세 농활 공과대학 농주체

2014 제51대 공과대학생회 '뉴런' 학생회장
2014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활동
2014 통일연세 농활 공과대학 농대장
ABEEK 포기제 도입을 위한 TFT 팀장 역임

부총학생회장 후보

유승민

경제학과 12



1993 경기 구리 출생

2012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자유전공 입학

2013 국제캠퍼스 용재하우스 RA
제4대 자유전공 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경제학과 전공진입
자유전공 존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2014 자유전공 학생회 이끌림 학생회장
2014 통일연세 농활 자유전공 농주체
연세인교육권실천단T Again 홍보팀장
국제캠퍼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TFT
시설/정보공개팀 팀장

공과대학생회장 으로서 함께한 2014년

87%

33개 공약사업 중 29개 이행
및 기타사업 진행

백양로프로젝트 공사영향 점검결과 확인
공과대학 출입제한 전면재논의 요구
청소어머님/경비아버님들과의 어버이날 행사
공학계열차등액 결산안 요구 및 현실화
ABEEK 인증지속여부 학과별 자율화
ABEEK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활동
공학원 뒷길 가로등 수리 및 조도개선 등
과학교양과목 국제캠퍼스 전면이전 저지

연세학생사회에 참여한지 만 4년이 되어갑니다. 2011년 반운영위원으로 시작해서, 2012년 과학년대표, 2013년 과학생회장이자 확대운영위원, 그리고 2014년 단과대학생회장이자 중앙운영위원으로, 대학생활에서 학생사회에 헌신한 활동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기층단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학생공동체에 대한 더 큰 희망으로 2015년, 총학생회에 도전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생회장 으로서 함께한 2014년

100%

11개 공약사업 중 11개 이행
및 기타사업 진행

자유전공 필수과목 재수강권 보장
자유전공 15학번 전공진입 쿼터 비율 조정
자유전공 전공 진입생들을 위한 전공설명회
자유전공 동문들과 함께하는 자전인의 밤
신촌캠퍼스 최초의 자유전공 자치공간 조성
자유전공 소모임 지원확대 및 예자위 내실화
자유전공 새내기 필수과목 / 타 전공기초 TO보장
국제캠퍼스 자유전공 전공도서관 개관

2013년, '자유전공 존폐위기'를 겪으며 학교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제캠퍼스 RA로써 RC제도의 정상화를 끊임 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중앙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자유전공 학생회장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TFT와 기획단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사회의 끝없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총학생회를 꿈꿉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 평가 및 선본 더블유 기조

Where we make history,
정갑영 총장의 연세대학교는 2012년, 13년이 그러했듯이
2014년 역시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학내전반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던 선본 'Solution'은 많은 지지 속에 제51대 총학생회로 당선되었습니다. 등록금, 장학금, 주거권 등 근본적인 제도 문제부터 '100가지 복지공약'으로 대표되는 학내복지까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경로의 정책적인 해답을 학우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총학생회 'Solution'은 이 변화들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했습니다.

'백양로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권리찾기 실천단 활동'
'연세인 교육권리찾기 실천단, Try Again'

선거당시 학우들과 약속했던 대로 설문조사식의 단편적인 소통보다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 본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상가'의 역할이 아닌 '대표자'의 역할로서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총학생회의 모습들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는 학생 권리를 대변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총학생회 'Solution'은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학생주거권 공약 이행, 공공부문
민영화중단 요구 기자회견'
'6.4 지방선거 대학생유권자 운동실천단
활동, 청개구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8.29 도심순례'

'Solution'은 대학생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곧, 연세인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세인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교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대학생에게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게 요구하는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회참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소신있게 활동하였고, 이로써 사회 속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Solution'은 선본당시 학내복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이후, 학우들은 'Solution'의 학내복지공약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관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우들과의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도 무색했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약이행 탭의 시계는 4월에 멈춰있고, 큰 예산이 투입된 총학생회APP은 9월이 되어야 출시되었으며, SNS상에 올라온 각종 건의와 질문들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등 학우들로부터 가깝지만은 않은 총학생회였습니다. 학내/학외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도 좋았지만, 총학생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큼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연세인'을 위한 복지는 당연히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들에 대한 명쾌함으로, 여러분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총학생회 더블유를 만들겠습니다.

'Solution'은 "합리적인 대응", "학교와의 협상" 등의 단어들로 이전 총학생회가 학교와 맞서 대응했던 방식을 예들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총학생회가 학교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 환경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학교-학생 간 근본적인 의사소통문제 해결입니다.

더블유는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맞선 경험을 토대로, 학교와의 의사소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2015년도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블유는 학생들이 변화를 만드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을 잘함으로써 총학생회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총학생회의 신뢰가 회복되면 약해진 대의체제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튼튼해진 대의체계를 톰니바퀴삼아 연세인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예측'이 아닌 '소통'을 통해 공감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연세인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말한다면 변화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버리고, 더디더라도 함께 공감하며 가겠습니다.

Contents

1 키워드, 소통과 공감

각종 민원 24시간 이내 FEEDBACK
민원상담전용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생회 오프라인 보고
콘테스트, '이심전심'

2 Special, 교육캠페인

3 Issue, 정책

_1 학교자치 _2 등록금/장학금 _3 백양로프로젝트
_4 교육권 _5 주거권 _6 RC교육제도

4 복지, 정책

_1 안전 _2 자치

_3 문화

진로특집 : 연세인의 미래까지 함께하는

학식특집 : 매일 먹는 학교밥, 싸고 맛있어질 수 있다!

_4 편의 _5 건강

_6 우리:더불다

_7 국제캠퍼스 이모저모

5 에필로그

1 키워드, 소통과 공감

【 민원 24시간 이내 FEEDBACK 】

여러분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민원 24Hour Process〉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사항 접수
(페이스북/유선전화/직접방문 등)

민원접수자가 관련부처 파악
및 안내방법 결정

학교에 관계부서가 있는 경우
: 관계부처 전화번호 안내

총학생회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대응방안 및 계획 안내

스마트폰을 사용이 늘어
나면서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이 늘어났지만 총학
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 온 많은 문의들이 긴 시간 방치되어 있어 아쉬웠습니다.

집행부 회의를 거쳐 해결방안 마련
: 추후 해결 결과 및 경과 안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 회복은 학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블유는 각종 민원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피드백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민원전용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학생들의 민원을 누구보다 신속하게!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 총학생회에 건의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하지?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네...”

기존에 운영되던 페이스북 페이지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민원상담 게시물을 올려도 다른 게시물에 밀려서 많은 학우들에게 공유되기
가 어렵고, 유사내용을 찾기가 힘들어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유는

민원상담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여러분의 건의
를 들겠습니다. 또한 Q&A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질문 없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존 페이스북

민원상담 게시물을
올려도 다른 게시물에
밀려서 다른 학우들에게
공유되기가 어려움

개선된 페이스북

따로 민원상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을 듣고,
해결 가능!

더블유가 총학생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갑니다.

[정기적인 오프라인 활동보고]

우리의 총학생회, 뭘 하고 있는걸까?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주요 공약사업이 어떻게 진행중인건지 / 경제학과 K군

공동행동에 참여했는데 그 후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 경영학과 L양

페이스북을 안하니까 총학생회 여러 일정도 잘 모르겠네요 / 대기과학과 P군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총학생회 활동들!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면 행사일정과 작은 이벤트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 오프라인 활동보고가 없는 총학생회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블유는 단과대별 주요지점에 총학생회 게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단과대 건물에 유틸게시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예시] 주요건물 내 총학생회 게시판 설치

총학생회 월간계획 및 타임라인
총학생회 주요 공약사업 진행상황
연세인이 꼭 알아야 할 학내소식

SNS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총학생회 더블유가 되겠습니다!

[연세 정책 콘테스트 이심전심]

내가 만드는 정책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서울시의 정책제안 프로그램 '천만상상 오아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제안 창구입니다.

더블유도 연세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연세인 정책 콘테스트 '이심전심'을 제안합니다.

이심전심이란?

1. [국어사전] 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

2. [더블유사전] 연세인들이 서로를 위해 나누는 따뜻한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연세인들이 참여하는 정책 콘테스트

이(二) 두 연세인의 심(心) 따뜻한 마음이 전(全) 전체 연세인의 심(心) 마음을 올린다.

Q.어떻게 진행되나요?

매 학기별로 1회씩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용	제안모집	제안심사	채택제안 정책화 및 진행	피드백
1학기	1월	2월	3월	4월
2학기	7월	8월	9월	10월

각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

정책이 채택되는 분들에게는 명예표창장과 생협상품권을 지급! 본인의 제안이 2만 연세인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

- 1 '이심전심'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정책제안 모집
- 2 공감도, 타당성, 현실가능성 등의 지표로 정책제안 심사
- 3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에서 5배수(10개)의 정책제안 선정
- 4 중앙운영위원회가 최종심사위원이 되어 정책화가 진행될 제안을 2개 채택
- 5 채택된 정책으로 단기/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정책화 진행

2 Special: 교육캠페인

【 교육환경개선 캠페인 】

빠른 길 보다, 바른 길로 갑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매년 총학생회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요구안을 결의하여 총장님께 전달하지만, 학생사회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 위주로만 공유되어 학내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봄이면 봄마다 교육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학우들의 꿈을 모아왔으나, 근본적인 의사결정구조상의 문제로 후속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내 의사 결정 구조에 학생 지위의 향상을 요구합니다.”
(2013년 제50대 총학생회 요구안 중 일부)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다.
교육받는 학생의 자아실현과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기계적이고 양적 기준에 치중한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하라.”
(2014년 제51대 총학생회 요구 결의안 중 일부)

연세인의 교육권에 붙은 울 것인가
(2014.04.05, 연세춘추)
교육권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 열려...
2천여 명의 학생 참여

학사제도 논의, 결국 '원점'
(2014.09.27, 연세춘추)
지난 18일 열린 학장협의회 논의 결과, 총학생회(아래 총학)
학사제도 개선 요구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의사결정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특정
한 사안사안들에 대한 공동행동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5년 3월, 더블유는 약속합니다

교육환경 개선 캠페인을 통해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변화시켜 학교와 학생이 서로를 학내
구성원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듣는 것이 먼저
입니다.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 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문화제, 서명운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에 강력하게 우리들의 요구안을 전할 것 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학우분들의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학우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정책과 행동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기설문조사

정기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Q1.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신촌캠퍼스에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예시)

요구안 전달을 끝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학교가
요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그 결과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학우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총학생회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학교를 바꿔주세요!**

3 Issue 정책

【 학교자치 with 대학평의원회 】

YONSEI, where we make history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대학평의원회란?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교육기관 소속의 자문/심의기구로서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의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운영 및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조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대학평의원회가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4월의 교육권 공동행동을 기억하시나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우리들은 공동 행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학교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고질적인 통보식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등록금 책정에서부터 재수강 3회 제한까지 학교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학평의원회 설립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학교가 특성화사업 선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설립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생색내기 식의 형식적 자문기구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평의원회 설립 자체가 의사소통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학교와 몇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더블유는 요구하겠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간 불균형을 인정하고 학생의원의 숫자를 상향조정할 것
2.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긴급 안전에 대해 비정기 회의를 소집할 것
3. 대학평의원회의 논의내용을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할 것

이미 연세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등록금, 이대로 괜찮은가요?

국내 사립대학 1위입니다.

2014년, 등록금 동결 과연 진짜 동결이었나요?

올해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동결은 실질적으로 인상과 다름없었습니다. 등록금이 높은 학과의 정원을 늘림으로써 평균등록금을 1.3% 인상시켰습니다.

대학알리미의 2014학년 대학 학과별 등록금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주요대학 특성화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과가 연 약 137만원을 납부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이었습니다.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정원

313명

2014
384명

2014년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부여된 의결 권한 등록금심의위원 회가 명목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블유는 신뢰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시키겠습니다.

하나, 2014 등심위 제안사항 이행요구

더블유는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다음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1.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청자료를 최대한 일찍 작성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학교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함께 국가나 재단의 추가부담을 늘릴 것을 주장할 것
3. 학교법인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법인회계 또는 운영관계자를 1회 이상 참석시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

둘,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목등록금 인하

지난 10여 년간,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지속적인 인하, 동결 추세가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등록금은 OECD국가 중 4위(2013년 OECD교육지표), 연세대학교 등록금은 국내 사립대학 1위(2014년 대학알리미 공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명목등록금 인하가 절실합니다.

더블유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여러 경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국가에 사립대학 정부지원금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구상



정부의 반값 등록금 구상

서울대학교 정부출연금 세입
: 약 4000억(2014예산기준)

연세대학교 정부지원금 수입
(교육부+기타국고지원)
: 약 370억(2013결산기준)

산술적으로 연세대학교의
정부지원금 수입이 서울대학교의
정부출연금의 5분의 1수준만
되어도, 명목등록금 **14.3%이하**
가 가능합니다.

지난 8월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해 '대학의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과 사립대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사립대학 정부지원금 확대, 특별 교육환경개선금 마련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2. 법인에 법정부담금 기준액 100% 전입이행을 요구하겠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법인부담금과 같은 말로,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높을수록 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이 조항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 그 부족액을 연세대학교 교비회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 예산부풀리기 관행 시정을 통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의 원인 중 하나는 방만한 예산편성입니다.

(2011 감사원 공식발표)

사립대학들이 예산의 지출은 과다하게,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과소하게 계상하여 '주먹구구식' 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도 등록금 고려요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위한 자구노력'과 '건축 기조 유지'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뺑튀기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부풀리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항목들을 더블유가 직접 분석해보았습니다.

〈2013 연세대학교 본교 결산서 주요 항목〉

항목	교비회계 당기결산액		
	결산액	예산액	증감액(예산-결산)
교원급여	73,119,190,399	75,853,067,000	2,733,876,601
시설관리비	32,562,658,301	33,870,159,000	1,307,500,699
일반관리비	26,421,380,576	30,503,086,000	4,081,705,424
운영비	17,627,244,123	21,056,272,000	3,429,027,877
기계기구매입비	7,274,751,491	8,781,546,000	1,506,794,509

교원급여 항목에서 약 27억
시설관리비 항목에서 약 13억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약 41억
운영비 항목에서 약 34억
기계기구매입비 항목에서 약 15억

총 130억 가량의 예산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집행율이 90%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117억이 뺑튀기예산!

뺑튀기예산/등록금총수입 = 117/2970(억) = 3.9%



더블유는 반드시 학교의 예산부풀리기 관행을 시정시키고, 등록금을 3.9% 이상 인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 장학금 확충을 통한 실질등록금 인하

혹시 '장학금의 역설'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 결과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니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금전적인 고민은 천정부지의 등록금뿐만이 아닙니다. 교통비, 교재비, 밥값, 집값과 같은 생활비까지도 고스란히 우리의 빛으로 남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대출이용 현황을 보면 12%의 학우들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8명중 1명이 빛을 만들어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블유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명목등록금의 인하와 함께 장학금 확충을
통한 실질등록금의 인하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도랑치고, 가재잡고!

- 등록금 인하하고,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받고!

학교가 등록금을 인하하면 인하하는 금액의 130% 만큼 해당 학교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금액으로 매칭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소득수준을 고려해 경제적인 고민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지원규모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12년 자체노력의
30%, 추가 자체
노력의 100% 인정

2013년 대응지원

13년 인정규모
60%, 추가 자체
노력은 130% 인정

2014년 대응지원

학교가 도랑치고, 가재잡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연세여, 연세여 사랑한다!

- 연세대학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장학금 재원 마련

1. 신청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모교 재학생 중에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모교에서 최소한 3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평량평균 3.75 이상
(4.3만점)이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 (기초학문 전공자 우선)
- ② 사법, 행정(행정직, 기술직), 외무
등 주요 국가고시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등 의 1차 합격자 중
평량평균 3.0 이상(4.3만점)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

(연세동문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중)

1885년에 개교한 연세대학교는 오는 2015년에 130주년을 맞이합니다. 5월 창립기념일에 열리는 졸업 25주년 및 50주년 행사를 비롯하여, 13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합니다. 다양한 목적의 기부가 있지만 후배들의 대학생활을 위해 장학금의 명목으로 기부를 원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업에 관계된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후배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블루이글장학금(가칭)'을 모금하고 선배들의 따뜻한 온기가 후배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블유가 직접 여러 행사에서 선배님들을 만나고 다니겠습니다!

【백양로 통행로 변경 공지】

메이즈 러너, 백양로, 안녕!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어? 이 길이 아닌가? 수업 5분 남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학생회관 어떻게 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백양로 통행로 학생들의 불편은 크기만 합니다!
백양로 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전에 통행로를 변경될 시, 이를 표지판
또는 포스터 등을 통해 정확한 통행로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더블유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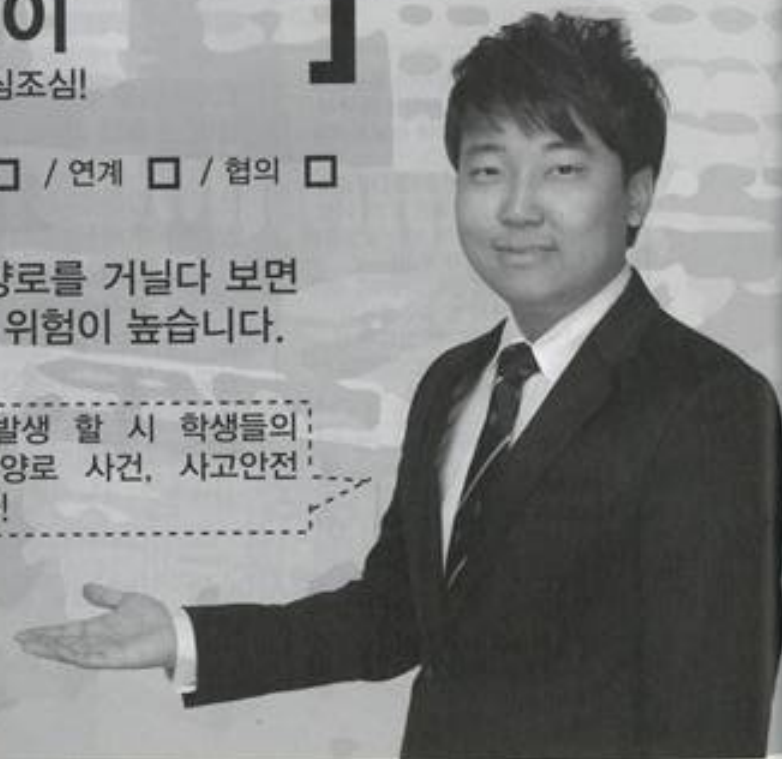
【백양로 사건, 사고 안전 알림이】

백양로 사건, 사고, 조심조심!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요즘 공사가 한창인 백양로를 거닐다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백양로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 할 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백양로 사건, 사고안전
알림이'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백양로 지상공간 잔디 사용】

캠퍼스에 낭만을, 잔디사용에 자유를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녹지공간이 확대되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녹지사용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늘어나는 녹지에 대한 관리비용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백양로 조경 자문위원회 학생위원 김홍찬
(10, 실내건축학과)



(가안) 백양로 완공 후



이용 가능한 공간(휴게, 보행, 잔디광장)
차량이 사라진 백양로 지상에는 보행자 중심의
이용공간이 증가합니다.

그 밖에 백양로 지상음수대 설치, 백양로 지하공간으로 이전하는 공간
들을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백양로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양로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다시 한 번, 캠퍼스에 활기를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백양로 공사로 인해, 캠퍼스가 삭막해요! 백양로에 흐르던 음악과 활기가 사라졌어요!
백양로 공사가 끝나면 캠퍼스 문화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죠?”

2014년 8월에 완공되는 새로운 백양로
새로운 백양로에서는 어떻게 문화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백양로
내의 문화공간 확보로 다시 한번 캠퍼스 내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 진짜 재수강 3회 제한 폐지 】

이제는 한 발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지난 4월,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총학생회와 실천단의 노력에 학생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안이 하나도 거부되지 않았다"는 말에 희망을 품었지만, 학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더블유는 2014년의 총학생회와 실천단의 고민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재수강 3회 제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공과대학 ABEEK 포기제 도입 】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정후보가 공과대학생회장 당시, 공과대학 소속 학과라면 필수이던 ABEEK 인증이 학과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도록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더블유는 이에 더해 인증을 유지를 결정하는 학과에서도 이수기준완화, 개인별 포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BEEK이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06학번 이후부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요건으로 지정되었다.
요구 이수학점이 140점에 달하고 경직된 커리큘럼을 가져 학사전반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것에 반해 사회 진출 시 혜택이 한정적이다.

【 과학교양과목 정규/계절학기 국제캠퍼스 전면 이전 유예 】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실험실습장비 이전을 이유로 정규학기/계절학기 과학교양과목 국제캠퍼스 전면 이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과대학생회장, 생명대학생회장, 이과대비대위원장이 전면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신촌 캠퍼스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과학교양과목:공학물리/공학화학/공학생물/일반물리/일반화학/일반생물 등)



더블유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목들의 순차적 국제캠퍼스 이전에는 동의하지만 완충기간이 없는 전면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더블유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목들의 국제캠퍼스로 입학하지 않은 학우들이 국제캠퍼스에서 재수강을 하는 것은 학사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으로 인해 교육권이 침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블유는 요구하겠습니다

1. 2015년 정규학기에도 2014년 수준의 과학교양과목 재수강분반개설 기초를 유지할 것
2. 여름계절학기도 마찬가지로 단일분반인 과학교양과목들을 '신촌캠퍼스 중심개설 원칙'에 따라 신촌캠퍼스에서 개설해줄 것

[소규모 강의 확충 및 대형 강의 축소]

진정한 교육에 좀 더 가까이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여러분은 대학에 입학하며 어떤 강의를 꿈꾸고 오셨나요.
집중도 잘 되지 않는 콩나물시루식의 대형 강의?
교수님, 동기들과 소통하며 배움이 가능한 소형 강의?

단순전달식과 주입식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 대형강의/초대형강의 개설 비율이 높은 연세대에서
참된 배움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높다하지만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대형 강좌 개설 비율 문제조차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블유는 약속합니다.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강좌를 골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배우는 것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강의 확충 및 대형 강의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절학기 수강료 인하]

투명한 계절학기 수강료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학교를 다니며 한번쯤은 듣게 되는 계절학기,
연세대학교의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 당 11
만원입니다. 일반학기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짐
에도 명확한 책정근거 없이 비싸기만 합니다.

더블유가 명확한 책정근거를 요구하고 반드시 인하 시키겠습니다!



[국제캠퍼스로 이전된 전공기초과목 신춘분반 개설]

지그재그식 강의 개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관계부처 : 학사지원팀 + 각 학과사무실

2014년, 신입생들이 전면적으로 국제캠퍼스로 이동하면서, 주로 새내기가 수강대상인 전공
기초과목들도 모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전공, 재수강들은 두 시간 수업을 듣기
위해, 국제캠퍼스를 오가며 세 시간을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시) 자유전공 전공필수 과목 지그재그 개설

	국제캠퍼스	신촌캠퍼스
1학기	논리와분석적판단	규범과비판적판단
2학기	규범과비판적판단	논리와분석적판단

교원확충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유전공과
언론홍보영상학부 등의
전공기초과목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블유는 지그재그식 강의 개설을 통해 현재 개설하고 있는 강좌
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양 캠퍼스에 적절히 분반을 분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학생설계전공 및 연계전공]

내가 만드는 나만의 전공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관계부처 : 학사지원팀 + 연계전공사무실

학생설계전공 도입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취합하고,
나만의 특별한 전공을 스스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전공분야의 과목들을 골라 커리큘럼 구성	승인을 받아 설계과목 이수계획표에 따라 조합된 과목들을 이수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
---	---	---

실제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설계전공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트렌드인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중앙대와 서강대 등에서도 도입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설계전공 모범 사례
도시교통정책학 = 건설환경공학과 + 도시공학과 + 행정학과
"공학적 요소와 정책적 요소를 융합하여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계리사학 = 경제학과 + 수학과 + 응용통계학과
- 고문헌연구학 = 사학과 + 문헌정보학과 + 중어중문학과
- 인공위성학 = 천문우주학 + 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연계전공 개선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전공을 연계하여 학문 간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14개의 연계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해야 할 교과목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고, 그 커리큘럼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학 연계전공 교과목 중 교육학과의 '한국교육문제세미나'는 2008년 이후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블유는 연계전공 사무실 및 담당교수와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개설 되어있는 과목부터 커리큘럼까지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실효성 있는 연계전공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거권 정책

주거권 확보, 더블유에게 맡겨주세요!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주거권은 사전적으로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주거권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거권은 교육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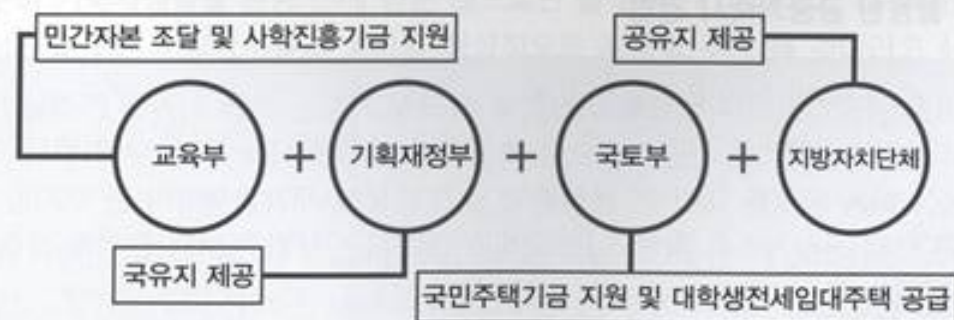
그러나, 연세대학교 기숙사는 수용률이 낮아 들어가기에 '하늘의 별따기'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낮은 접근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블유는 연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순히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들을 연구하고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에 공공기숙사의 양적 확충을 요청

캠퍼스 내부에는 더 이상 건물이 신축 가능한 부지들이 없습니다. 기숙사의 양적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착공되었던 '홍제동 대학생 행복기숙사'. 다음과 같은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기숙사는 월 평균 34만원인 사립대 민자기숙사비에 비해 15만원이 저렴한 월 19만원으로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서대문구·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생 주거안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행복기숙사 확충 방안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국, 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장기 저리 지원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 매년 2~3개 사업, 2,000명(510억원*) 수용 규모

* (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47%

○행복(지방) 학사

소규모 국, 공유지에 지방비,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

⇒ ('14년 이후) 매년 300명(75억원*) 수용 규모

서울시내 버스종점 근처 부지에 공공기숙사 건립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고덕동 주거복합개발 신축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
업은 황무지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던 부지를 재생하여 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산층에게 적합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이러한 부지들을 찾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것 역시 부지 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종전부동산을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종전부동산이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겨지는 해당 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
지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공기
관 청사 특성상 허용 용적률 대비 현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개발잠재력이 큰 부지입니다.
종전부동산은 현재 공공기숙사 확충의 큰 숙제로 여겨지는 부지 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둘, 우정원의 정상화 및 기숙사 신축계획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

우정원 기숙사비 거품 빼기

우정원 2인실 1인당 36만 5천원.
자취/하숙방 시세와 비교해도 너무 높습니다.
진짜 우리를 위한 '착한 기숙사' 맞나요?

기숙사비 책정 시, 주로 고려하는 항목은 운영비와 감가상각비입니다. 저렴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고급기숙사를 건축을 선택했다면, 학교
에게도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소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

더블유는 학교도 우정원 감가상각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기숙사비를 여타 기숙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우정원의 준비되지 않은 입사에 대한 보상

더블유가 직접 들어본 우정원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냄새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돌가루 때문에 입주한 날은 청소만 했어요."

"식당은 원래 설계에 없대요. 밥 먹을 거면 무악학사 2학사 까지 가래요."

"아침만 되면 주변에서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엄청나서 목이 아파요."

"문자나 전화도 잘 안 터지고, 와이파이도 방까지 안 들어와서 불편해요."

단순히 기숙사생들을 완공 전에 받은 것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입주하는 학생들은
우정원의 모든 시설요소들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
숙사비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상의 형태
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블유는 2014-2학기 입사자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2015-1학기에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사모집을 요구합니다.

기숙사 신축계획 원안의 조속한 진행 요구

지난 9월에 지어진 우정원은 2012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기숙사 신축계획의 일부로 전체 신축기숙사의 약 20%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외부총장 : ... 연대에서 기숙사에 관심이 많다. 430명되는 시설이 8월에 일단 완공될 것이고, 이어서 3개 시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그게 완료되면 2000명 인원을 수용 가능할 것이다. ... 앞으로 동문, 회사의 힘을 빌려 장담은 못하지만, 기숙사를 증축, 신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

(2014 연세대학교 확대간부수련회, '학교 본부와와의 대화' 중)

정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캠퍼스 내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재정기숙사

대학재정(사학진흥기금 융자 포함)으로
기숙사 건립
⇒ 매년 1 ~ 2,000명 수용 규모

사립대 공공기숙사

공공기금 장기 저리 지원하여 기숙사
건립(교육부, 국토부, 사학진흥재단)
⇒ 매년 8,000명(2,060억원*) 수용 규모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재정 10%

더블유는 기숙사의 3개동 신축에 대한 계획이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우정원 입사자선발기준 재조정

제51대 총학생회에서는 임기 초, 전 학생복지처장과의 우정원의 입사자선발기준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있었으나, 학생복지처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우정원이 실질적으로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존 우정원 입사자선발기준 계획

50% : 대학원생 / 40% : 학부생
10% : 대학원생에게 1순위 제공

올해 10월, 우정원 입사자선발기준

100% : 대학원생에게 1순위 제공

더블유는 우정원의 입사자선발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학생사회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실, 우정원. 꼭 돌려받겠습니다!

RC 교육제도

진정한 교육을 위한 RC,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관계부처 : RC교육원 + 학부대학

국제캠퍼스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RC교육
학내사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던 RC교육
RC교육도 국제캠퍼스와 함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책은 정책수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RC교육도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RC교육의 정상화를 돕고 싶습니다.

더블유는 RC의 취지를 존중하며, RA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 학교가 RC에서 놓치고 있는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고 제안합니다.

더블유는 RC교육주체와 학생사회가 함께하는
RC교육을 만들겠습니다.

RC 교육공간의 확장

더블유는 RC교육을 위한 공간이 시설 증설 외의 방법으로도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RC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RC교육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합니다.

공간이 100% 활용될 때,
교육은 200% 달성됩니다.

행동과 심리 특징을 통한 공간구분	행위 분류	공간수요 분석
생활공간	수면, 위생	거주공간 - 사생실, 세면실, 화장실
학습공간	개인학습, 공동학습 학습발표, 수업보완	사생실 내 학습공간 -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그룹스터디룸, 세미나룸
교류공간	대화, 토론, 사교, 만남	교류공간 - 내부 휴게공간 로비 등 공용공간
활동공간	체육, 문화 게임, 프로그램참여	다용도공간 - 휘트니스,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형 대학 지원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학습공간〉

현재 국제캠퍼스 생활 인원 5000여명 > 열람실 총 835석
(언기도, 기숙사, 지혜관 포함)

더블유는 강의공간을 개방하여 학습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교류 및 활동공간〉

국제캠퍼스에 숨어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더블유는 대관시스템의 간소화와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

RM 선발과정 정상화

2012년까지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든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RM모집이
2013년부터는 학부대학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M(Residential Master) :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상주하며
RC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수)

이로 인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대학 소속 RM의 비중이 높아진다.
2. RA ▶ RM ▶ 학부대학(RC교육원) 순의 피드백 제한
3. 학부대학의 국제캠퍼스 및 RC교육에 대한 영향력 증대
4. RC교육을 고민하고, 개선해나갈 구성원들이 줄어들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고, RM들이 RA와 함께 민주적으로 각 하우스의
정체정을 형성해 나갈 때 진정한 RC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블유는 RM 선발대상을 교수 전체로 확대하여
정상화하고, RC교육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구성원들만이
존재하는 RC를 만들겠습니다.

RA처우개선

RA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2014년 2학기 RA모집은 추가적으로
세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RA통금, 과한 업무량, RHC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RC교육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RA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상황에서는 RA들이 진정한
RC교육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더블유는 RA처우개선을 통해
RA가 RC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RA-총학생회 협의체 구성

이제는 교육권을 고민하는 총학생회와 RA사회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과/반 학생회와 하우스의 역할이 겹쳐 생기는 많은 문제들,
학생회와 하우스 교육이 경쟁구도 속에서 해석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블유는 RA-총학생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학생회 국제캠퍼스국과 각 하우스의 Chief RA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RA-총학생회 협의체 구성

더블유는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신촌 재수강분반 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HE연계 신촌 재수강분반 개설

둘째, 단기 캠프를 통한 재수강

셋째, RC101 신촌 재수강 분반 개설

HE
프로그램

방학 단기 멘토링 캠프

송도 온스쿨 방학
프로그램 연계

계절학기 체육 프로그램

HE강의, RC101 개선

〈HE강의 개선〉

무조건적인 재수강 분반 개설은 RC101, HE강의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재수강분반 개설도 중요하지만 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HE는 RC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교과목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주제로 구성됩니다.

3가지로 제한되는 카테고리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TO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수요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블유는 학생 수요를 반영해 분반을 적절히 구성하고, HE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RC101 개선〉

RC101 역시 애초 취지와는 달리 강의내용이 빈약하고 모든 학부, 학과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는 등 문제들이 많습니다.

RC101 커리큘럼을 애초 취지대로 개선해 새내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양보다 질! RC프로그램

RC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공연과 강연들은 보여주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무관심과 강제참여라는 악순환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RC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RC프로그램들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더블유는 RC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직접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RC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4 일상 속의 정책

2014년 한 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였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3월에도 백양로 공사 현장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할 정도였는데 학교 차원에서 공지문이나 방송 하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캠퍼스에서 일어 날지도 모를 사고들에 대한 예방책 이 필요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더블유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검사자료 공개요구]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지난 해 9월 한 언론에서 “백양로 공사로 7m 떨어진 제1공학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백양로프로젝트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양로건설사업단 측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특별점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별점검 보고서

더블유는 학내에 예정되어 있는 첨단융합공학관(공대타워) 신축공사, 이과대학 증축공사, 신경영관 신축공사 등 신축건물들에 대한 안전검사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세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북문 기숙사길 안전강화]

여러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합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 3번 버스를 타고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역에 내리면,
기숙사까지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요. ”

현재 연세대학교 서문 언덕에는 비상벨과 CCTV가 달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우관을 통해 기숙사로 가는 길에는 학내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문 주변은 여전히 어두우며, 실제로 바바리맨이 출몰하는 등 범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블유는 서대문구청을 통해 북문에 가로등 증설 및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겠습니다. CCTV와 비상벨 설치, 방범지역 표지판 설치를 통해 24시간 연세인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글가드 순찰노선 표지판 설치】

더블유는 이글가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교내에도 안심귀가 서비스가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이글가드들이 밤마다 순찰을 돌며 신촌 일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가드의 구체적인 활동 시간이나 노선을 알기 힘들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더블유는 셔틀버스 시간표가 공지되는 것처럼, 이글가드 순찰 시간표를 만들어 안전한 시간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글가드의 서문활동 노선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전봇대나 벽에 표시된 이글가드 표지판을 보시고 안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서문 표지판 설치 예시

더 나아가 더블유는 이글가드 순찰노선을 따라 눈에 띄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한 길을 따라가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캠퍼스 일대의 순찰 강화를 요구하겠습니다



【연세재난방지알림 시스템 구축】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백양로 공사현장 가스누출 사고 발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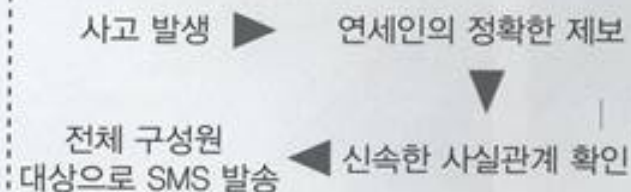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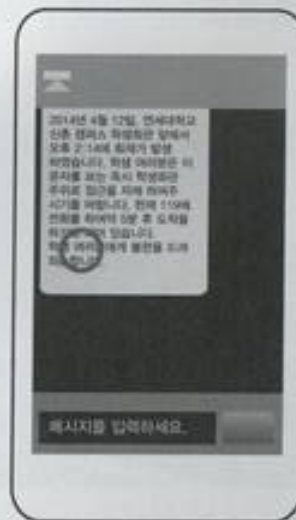
연세춘추 2014.03.29.

백양로 가스누출 사고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했고, 긴급 상황 알림전광판, 문자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긴급상황 발생시 시스템 긴급상황이 확인되면 총학생회로 유선 안내를 하고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시스템 등을 통한 안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블유는 연세재난방지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SMS를 통해 학우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재난방지알림 문자



연세대학교
 2014년 3월 29일

【 학내 여러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

더블유의 섬세한 생각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2014년 한 해는
유난히 사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
였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정후보가 공과대학생회장 당시 건의 를 통해 여
러가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들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작은 노력만으
로도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울샘 옆 논슬립 패드



공학관/체육관 가로등

더블유는 각 단과대학생회와 함께 학내 여러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점검하겠습니다.

【 생활협동조합 학생활동지원금 투명화 】

더블유는 당신의 자치활동에 함께합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우리가 학교에서 이용하는 매점, 식당은 대부분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13학번 이후는 선택적으로 조합원)

학생활동지원금이란?

생활협동조합에서는 학생활동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나 학생들을 지원하는 형
식으로 학생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과
단체가 많으며, 실제로 학생활
동지원금의 대부분은 자치단체
로 돌아가기보다 학생회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블유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학생활동지원금을
명확히 공시하고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 함께하는 자치활동

진정한 원 캠퍼스의 실현, 교류에서 시작됩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하나, 신촌-국제캠퍼스간 셔틀버스 증차

예약하는 게 완전 수강신청 급! πππ 사람이 몰리는 시간만이라도 셔틀버스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셔틀이 너무 적어서 1분도 안돼서 마감된다니 말도 안돼요. 피크타임 때
셔틀 버스 배차간격을 좁혀서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4, RC NO CR 시행 설문조사 응답 中)

현재 신촌-국제캠퍼스 간 셔틀버스 예약은 수강신청처럼 초를 다투게 합니다. 특히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20시 30분~23시, 국제캠퍼스-신촌캠퍼스 15시 30분~19시
동안의 좌석은 예약개시 후 **1분도 채 되지 않아 만석**이 되어버립니다.

신촌캠퍼스	2014/11/04	20:30 ~ 21:30	만석
신촌캠퍼스	2014/11/04	22:00 ~ 23:00	만석
신촌캠퍼스	2014/11/04	22:30 ~ 23:30	만석
신촌캠퍼스	2014/11/04	23:00 ~ 00:00	만석
국제캠퍼스	2014/11/04	17:30 ~ 18:30	만석
국제캠퍼스	2014/11/04	18:00 ~ 19:00	만석
국제캠퍼스	2014/11/04	19:00 ~ 20:00	만석

11월 4일 셔틀예약이 개시되는, 11월 2일 14시부터 2분이 지난 상황

약속드립니다

더블유는 진정한 원캠퍼스를 위해 이동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피크 시간인 신촌 발 21시 버스와 송도 발 18시 30분 버스의
증차를 약속드립니다.

둘, 국제캠퍼스 게스트룸 비용 인하

국제캠퍼스에 후배들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숙박이 걱정되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이 보장되어야 국제캠퍼스에서의 다양한 자치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선후배교류 등 **학생활동의 목적으로 방문한 학생에
대한 가격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캠퍼스 게스트룸(2인실) 숙박료

	교내구성원 (1인당)		
	1일	2~8일	9일 이상
2인 사용	28,000원	23,000원	19,000원
1인 사용	35,000원	30,000원	26,000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2인실을 2인이 사용하면 **총 56,000원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이 요구됩니다.

2014-2학기 기준 송도학사 2인실 기숙사비
1,464,000원
2014-2학기 기준 송도학사 거주기간
116일 (8월 27일 ~ 12월 20일)

이를 근거로,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1,464,000원 / 116일 = 약 13,000(원/일)

실제 체류기간이 짧고, 단순히 숙박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가격인하가 가능합니다.

약속드립니다

더블유는 현실성을 고려해 **1인당 하루 1만원(2인실, 2인사용)**
으로 국제 캠퍼스 게스트룸에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YONSEI, Cultural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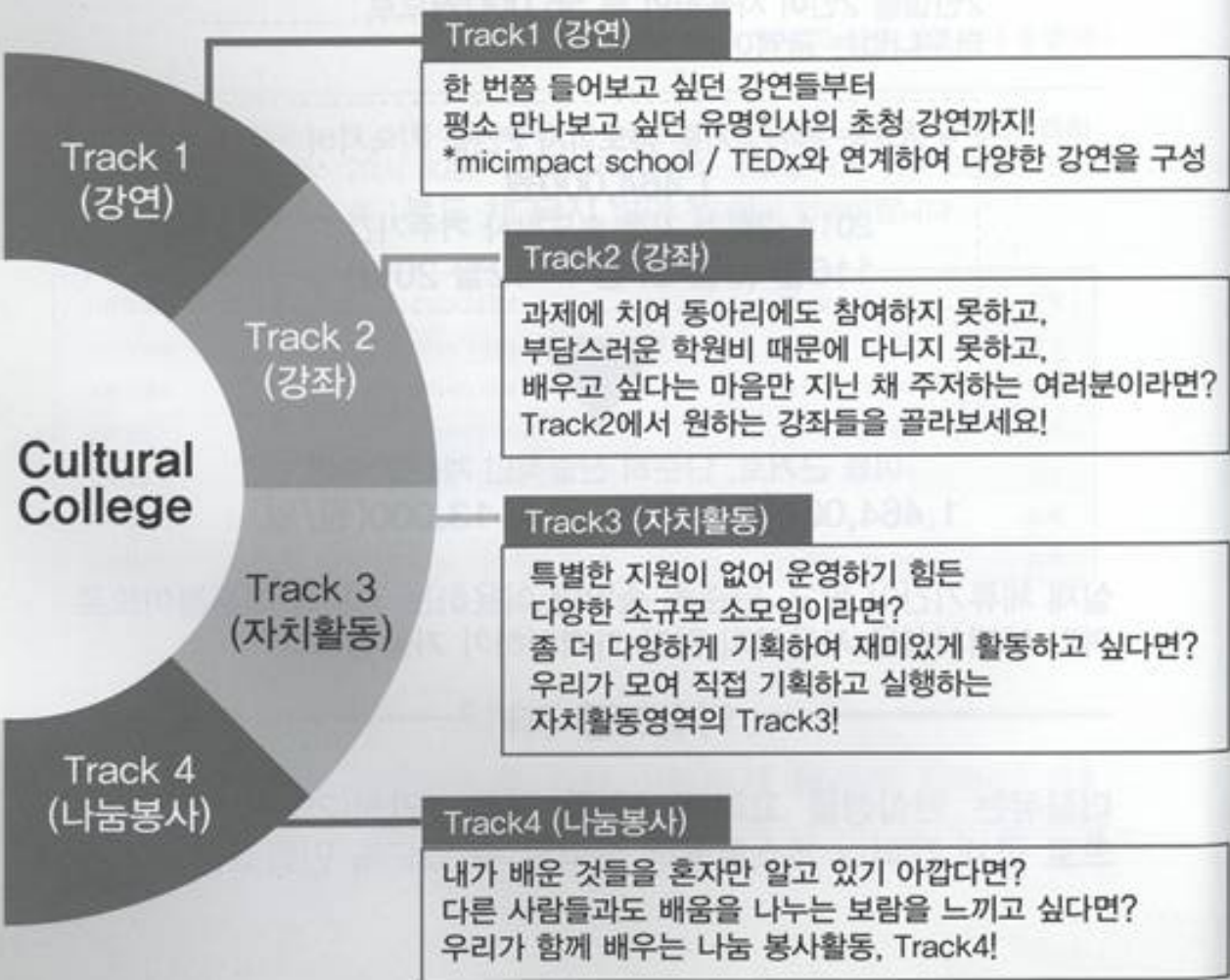
나에게 와 닿는 문화생활, 이제는 학교에서!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대학생이 되면 한 번쯤 배우고 싶던 것들!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모르겠다면?

Cultural College로 오세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강연들부터 전공수업 이외에 한 번쯤 배워보고 싶던 강좌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치활동과 나눔봉사까지!



<강연> 예시

- 내게 맞는 컬러 스타일링/메이크업
- 캘리그래피 / 사진 입문 / 스피치 / 연애의 심리학 등
- 저자 / 유명인사 초청강연

<진로특강> 예시

- 나만의 꿈, 내 인생의 비전 찾기
- 대기업이 전부는 아니지! : 조금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너희를 위해
-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 당일 노하우 / 이미지 컨설팅

Point 1 : 6회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하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문성은 높게!



Point 2 : 단순한 취미입문을 넘어 자기계발분야로까지 확대

Point 3 : 주변학원, 재능기부자 중심으로 연계를 통해 최소한의 수강료로 저렴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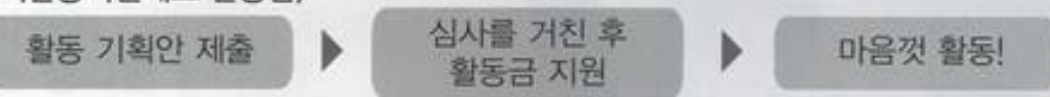
예시)

강좌명	일시	총 횟수	수강료
보컬트레이닝1	화/목 11:00 ~ 12:00	12회	₩50,000
	화/목 19:00 ~ 20:00		
요가	월/목 19:00 ~ 20:00	12회	₩50,000
PPT 다루기	목 19:00 ~ 21:00	6회	₩30,000
영어회화	월/목 10:00 ~ 11:00	12회	₩40,000
	월/목 19:00 ~ 20:00		

<자치활동지원제도>

-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싶은 누구나 모여서!
- 지원이 없어 운영하기 어려웠던 여러분의 자치활동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자치활동지원제도 활용법>



<시간을 달리는 작은 교실>

-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청소 /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공부방 멘토링>

- 서대문구청과 연계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도우미 사업 시행

<연세에듀캠프>

※ 연세 에듀캠프란?
국내 교육기회가 비교적 적은 농어촌 및 산촌과 낙도 등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약 일주일간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

【 다시 시작하는 동행프로젝트 】

우리는 같은 연세인!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제49대 총학생회와 제50대 총학생회가 진행했었던 동행프로젝트, 취지와 반응이 좋았던 이 프로젝트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동행프로젝트는 같은 길을 간다, 함께 간다라는 의미로서, 희망하는 운동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이 1:1로 매칭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깊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제49대 총학생회 'Focus On' 정책자료집 중)

동행프로젝트 1년 활동계획 예시

- 2월 : 운동부 선수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 3월 : 선수와 학생 간의 첫 만남에서 동행친구가 되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 5월 : 동행친구함께 즐기는 아카라카를 온누리예
- 7월 : 동행친구가 다같이 떠나는 여름여행과 여름MT
- 9월 : 운동부 선수들의 필승/압승/전승을 기원하는 정기연고전 참가
- 11월 : 가을MT를 통한 한 해 마무리 및 한 해 평가



더블유는 동행프로젝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프로젝트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 연세 진로탐색 프로젝트 】

진로가 고민인 당신과 함께!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일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건지. 진로고민 때문에 여전히 막막한 연세인들을 위해! 학교의 경력개발시스템을 보완하여 제!대!로! 진로준비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Q.
막연히 '무엇이 하고싶다'는 생각만 든다면?
막상 들여다 보았더니 내가 상상한 것과 많이 달랐다면?

직접 무슨 일을 하는지 속 시원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여러분의 진로까지 함께하는 총학생회, 더블유가 그려가는 총학생회입니다.

하나, 분야별 커리어 간담회 개최

분야별로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례 : 국책은행 커리어



연세경영 100주년 CL포럼 제2회 <국책은행 커리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2015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세경영 100주년 CL포럼'을 진행합니다. CL포럼은 학생들에게 해당주제산업의 이해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합니다.

본 연세경영 100주년 2회차 CL포럼에서는 '국책은행 커리어' 주제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지는 2부 커리어간담회에서는 국책은행(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재직 중인 실무자들이 금융권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책은행은 물론 금융권 커리어에 관심 있는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초대합니다.



둘, 특정 분야 세미나 & 동문 특강 교과목 확대

현재 상경경영대에서 열리고 있는 다음의 교과목을 아시나요?

“연경리더스포럼(경영), 시장경제포럼(경제), 시사통계학(응용통계)”

바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 교과목!
현재같은 전공으로 사회에 계시는 동문 선배들과 만나는 특강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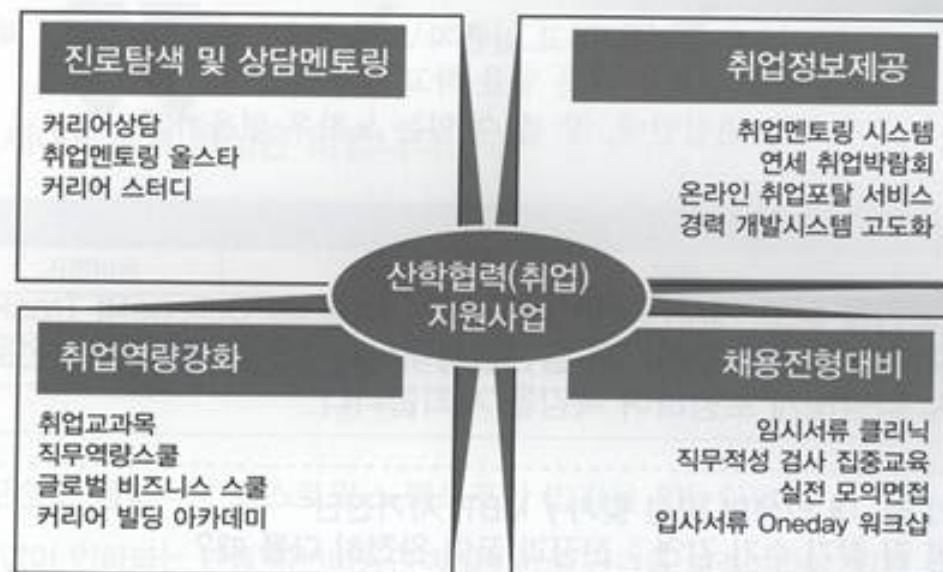
이 교과목들이 우리 전공과목(혹은 우리 단과대)에도 생긴다면?
진로고민과 학점까지 챙기는 1석2조의 효과!

셋, 릴레이 JOB 콘서트

모든 1~4학년을 대상으로, 특정 기업에 실제 다니고 있는 동문선배와 1대 소수로 진행되는 멘토링!-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선배와도 직접 만나고! 궁금증도 풀고! 매월 혹은 2주마다 릴레이 개최로 내가 원하는 분야들을 끊임없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실전 준비 ▶ 구체적인 기업과 함께 실전준비가 필요한 단계!

경력개발시스템 (career.yonsei.ac.kr)을 아시나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고 4학년과 재학생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인한 엄청난 경쟁률. 우리의 아쉬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넷, 경력개발시스템의 실질적 보완

사전 설문조사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별!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의 예산을 재편성하여 프로그램과 인원을 확대



결과적으로,
실제로 진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인원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이런 건 어떠신가요?

“나는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사실 내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다음 주가 채용 면접인데, 잘 볼 수 있는 노하우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Cultural College의 Track1과 연계하여 진로방향찾기부터 실전면접대비까지 동문 선배부터 전문 강사까지 다양하게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합니다.

- 나만의 꿈, 내 인생의 비전 찾기 / MBTI 자기진단
- 나만의 길 찾기 수기 강연 : 전공과 꿈이 완전히 다를 때?
-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 당일 노하우 / 이미지 컨설팅
- 서류 제출 전, 자기소개서 점검하기

Plus, 하나 더!

각종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연세인 여러분을 위해,
 학교 주변 스터디카페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학생증을 보여주면, 스터디룸 이용료 10% 할인!

예시) 4명이 1주일에 2일, 3시간동안 스터디를 한다면,
 하루 6,000원 1주일에 12,000원 1달이면 48,000원 절약!
 (1시간 5,000원 기준, 10%를 할인 받을 때)

[학식가격인하]

매일 먹는 학교밥,
 싸고 맛있어질 수 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연세대학교의 학식은 비쌉니다.

치킨 오므라이스	항목	비율	가격
가변비용	재료비	50%	2250원
고정비용	시설운영비, 안건비, 기타	42.8%	1926원
	수도광열비, 생협수수료	7.2%	324원
총 합계			3500원

단순히 생협식당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밥값을 깎는다면?

밥값이 인하되는 만큼 가변비용인 재료비에서 가격을 내려야하며, 밥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고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생협식당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밥의 질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값이 저렴하기로 유명한 한국외대와 인하대에서도 학교의 지원이 없다고 하네요. (한국외대, 인하대 생활협동조합 담당자 직접인터뷰)



연세학식 1800 ~ 2200원
 2005년 이후 가격 동결

그 해답은 바로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체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점과 문구점 등 기타 사업체의 판매수익으로 학생식당의 손해부분을 채워주는 방법' 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식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생협식당별로 건물 근처에 있는 단과대학생회와 연계하여 식당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식당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가격과 음식의 양, 맛 등 모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생협과 사전논의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연세인의 장거리 통학버스

‘눈뜨면 연세대’

눈뜨면 연세대학교가 눈앞에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혹시 눈뜨면도착이라는 사업을 알고계신가요?
서울권 대학 통학불편 해소를 목표로 아침스쿨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더블유는 ‘눈뜨면도착’ 과 연계하여 여러분의 통학이
편안해지도록 돕겠습니다.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노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눈뜨면도착’ 사업팀과 직접 연락을 해본 결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사업연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요만 있다면 ‘눈뜨면도착’ 의
연세대 버전, ‘눈뜨면 연세대’ 가 가능합니다.

무악학사 시설

개선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무악학사 내 와이파이 추가설비

무악학사 매점을 생활협종조합 직영으로 전환

무악학사 체력단련실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

무악학사 자치회비 회계 공개 및 자치활동 장려책 마련

남자휴게실 마련 및

여자휴게실 환경개선

더블유는 당신의 자치활동에 함께합니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남자휴게실 마련

남자휴게실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방 / 빈방이 남자휴게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방 / 빈방도 각각 분위기가
달라 모든 구성원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휴식할 공간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휴게실 마련

여자휴게실의 환경개선도 필요합니다.
많은 여학우들이 여자휴게실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도, 다소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자휴게실 환경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휴식’
더블유가 앞장서서 연세인의 ‘휴식’ 을 보장합니다.

- 신축되는 건물 또는 유휴공간이 생기는 건물 위주로 각 단과대별 남
자휴게실 공간마련과 여자휴게실 확충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 백양로프로젝트 이후 생기는 학생회관 유휴공간에 충분한 남자휴게실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자휴게실을 줄여 남자휴게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공간을 만들어 남자휴게실을 마련합니다.)
- 여자휴게실에 생리대와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각 휴게실이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조모임
등의 공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멤버십카드의 새로운 대안]

멤버십카드의 진화는 무죄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연세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들.
다들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온 제휴멤버십.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On Card와 S-membership 비교

On Card(2013)	S-membership(2014)
방식 : 동업종 한 개의 업체와 계약 - 비교적 높은 할인율 - 혜택가능한 업체가 다양하지 않음 - 입간판 등으로 홍보가 잘됨	방식 : 동업종 업체 수 제한없이 계약 - 비교적 낮은 혜택이 제공 - 혜택가능한 업체가 다양함 - 홍보가 잘 되지 않음

더블유는 혜택도 커질 수 있고, 업체도 다양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멤버십을 제안합니다!

바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제휴멤버십 전문 App과의 연계입니다.
여러가지 제휴멤버십 전문 App을 비교하고, 직접 담당자와 연락하여 현실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Syrup' 이라는 App이 가장 적당한 App이었습니다.

Syrup과 연계하면 커지는 멤버십의 편리함

1. 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이 증가
2. 무료쿠폰, 할인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
3. 제휴업체와 각종혜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가능

What is Syrup?

스마트 월렛의 새로운 이름!
"생활의 달콤함을 더하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Syrup은 멤버십 카드와 쿠폰, 이벤트 등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Mobile Wallet입니다.

(Syrup 제공)

[신촌 셔틀버스 개선]

연세인들의 버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하나, 신촌 셔틀버스 증차

현재,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의 시간동안 셔틀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학우들이 많은데도 셔틀이 운행되지 않고 있어 불편합니다.

**더블유는 11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도
셔틀을 운행해 연세인의 불편을 덜겠습니다.**

어떻게?

전체 셔틀과 운전기사를 2조로 나눠, 11시부터 12시까지는 1조가 셔틀을 운용하고, 2조는 그 시간에 휴식과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2조가 셔틀을 운용하고, 1조는 그 시간에 휴식과 정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둘, 신촌 셔틀버스 종착지 표시

백양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신촌 셔틀버스 노선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노선 때문에 셔틀시간표와 노선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반대방향으로 탑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블유는 셔틀버스의 종착지를 표시하여
연세인의 불편을 덜겠습니다.**

【 중앙도서관 화장실센서 교체 】

사소한 불편함에 주목하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중앙도서관 화장실센서가 정지 동작을 인식하지 못해 꺼져서 난감하셨죠?
더블유가 화장실센서를 인체감지방식이 아닌 개폐감지방식으로
교체하여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시는 중에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pen / Close Sensor를 활용하여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와이파이 음영지역 수합 및 개선 】

사소한 불편함에 주목하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인터넷 검색을 해야하는데, 카카오톡을 해야하는데, 내 데이터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는데, 수신감도가 왔다갔다하며 밀당하는 와이파이로 고생한
적 다들 있으시죠?

더블유는 시설처와 함께 직접 방문과 학우들의 제보를 통해
와이파이 음영지역을 빠짐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캠퍼스 구석구석까지도 와이
파이가 팔팔팔 터지는 환경을 약속합니다.**

【 신촌-국제캠퍼스 셔틀버스 오버부킹 제도 】

수강신청만큼이나 힘든 셔틀버스 예약!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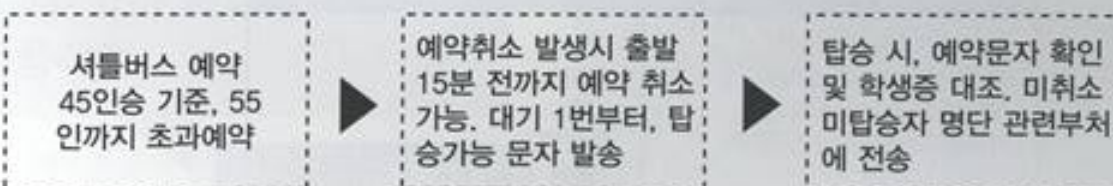
현재의 셔틀버스 예약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셔틀버스 예약인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대기자
행렬이 길어지고, 실제수요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버부킹 시스템이란? 셔틀버스를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탑승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하여 셔틀버스의 좌석수보다 더 많이 예약 접수를 받아두는 시스템을 말합
니다. 앞 순번의 사람이 취소하면 자동으로 뒷 순번의 사람에게 셔틀버스 탑승 우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버부킹 시스템은

실수요 파악이 가능해, 학교가 셔틀버스 증차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굳이 셔틀버스 대기자 줄을 설 필요가 없어 예측가능성이 커집니다.



더블유가 개선하겠습니다.
진짜 ONE캠퍼스, 셔틀버스의 편리함에서 시작합니다.

【공학원 식당 테이크아웃 밥버거 판매】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멀리서 통학하면 아침을 못 먹고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문근처 공학원 식당 아침메뉴에 테이크아웃 가능한 밥버거를 판매하겠습니다.

더블유는 연세인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총학생회실 비상약품 구비 및 배분】

신설 ☒ / 보완 ☐ / 요청 ☐ / 연계 ☐ / 협의 ☒

현재 건강센터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복약	외용약
화이투벤 (종합감기약) 아진탈포르테 (소화제) 후라베린큐 (설사약) 타이레놀 (발열 및 두통약)	거즈 메딕스 반창고 종합밴드 1회용 소독약 압박붕대 물파스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 비상약품을
구비하고 방문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별 공약】 우리 모두의 연세를 위하여

-본교 캠퍼스와의
소통단절문제 해결 지원
-학생회관 셰어링 자치공간
대여권한 부여

의/치/간호대

-교육과학관 음수대
시설 개선
-교원임용시험 설명회
개최 지원
-교육학과 체육교류전
물품대여

교육대

-공학계열 차등액
지속적인 감시
-공대타워공사 제1공학관
지하 자치공간 대체공간 마련
-공대타워에 24시간 출입
자치공간 / 독서실 요구
-공학물리 / 공학화학 /
공학생물 여름계절학기
신촌캠퍼스 개설

공과대

-학교의 일방적
학제개편시도 공동대응
-국제대학 과반학생회
체계 정립 지원

국제대

- 외술관 트레비앙 신규개점
- 청경관 식당자문위원회
개설 및 식사환경개선
- 위당관 화장실 등 환경 개선
- 외술관 복사실 정비 및 확장

문과대

- 상경경영대 수강신청
문제 근본적인 해결 지원
- 상별 & 상본지하 화장실
환경개선
- 상대도서관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지속적 협의
- 선경영관 이전 후 대우관의
유희공간에 편의공간 확대

상경경영대

- 전공신청 관련 스크린제도
시행여부 논의
- 전공 강좌 수 확충으로
수업선택권 보장
- 학과별 개론과목에 대한
TO 확충
- 사회과학대 PF장학금
선정 기준 투명화

사회대

- 삼성관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 3000 / 4000단위
실험실습비 지원방안 마련
- 삼성관 ~ 종합관
산길 2차 보수

상과대

- 학생회관 유희공간에
전용자치공간 배정
- 과학교양과목 여름계절학기
신촌캠퍼스 개설

생명대

- 국제캠퍼스 고시실 관리
문제 지원
- NON-RC 관리문제
해결방안 모색

약학대

- 와이파이 음영지역 수합하고
개선방안 마련
- 이과대학 증축 시 자치공간
재배정 논의 지원
- 과학교양과목 여름계절학기
신촌캠퍼스 개설

이과대

- 신학관 각종 시설 개선

신과대

- 백양로 공사로 인한 노천극장
쪽 출입로 문제해결
- 음악대학 경유 셔틀버스
노선 설치관련 논의

음악대

- 자유전공 자치공간 확충
- 자유전공 장학금 구조개선

자유전공

-타 학교와 연계하여
전공과목 이수 방안 마련

법과대

-백양로프로젝트 완료 후
학생회관 유희공간에
동아리 쉐어링공간 마련

중앙동아리 / 일반동아리

-학생회관에 BK전용
자치공간 확보
-학생복지처 통한 활동비
지원 확대

기수단 (BK)

-각종 행사 시 원활한
이동 · 참여 보장
-학생회칙 관련조항 신설을
넘어 필요한 각종 활동 지원

장애인권위원회

-대동제 체육제, 연고전 등
체육부의 주요활동 인프라
적극보상

체육계열

-합동응원전, 연고전 등
응원단행사 시 총학생회
차원의 협조방안 마련

응원단

-학생회 체계 구축 지원
-학생회 체계 구축 후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 지원

글로벌인재학부

[국제캠퍼스 이모저모]

국제캠퍼스 주말 온스쿨 운영

주말이면 텅 비어 아무도 없는 국제캠퍼스.
주말에도 할 일이 있으면 국제캠퍼스에
있지 않을까요?

더블유는 국제캠퍼스의 주말에
온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온스쿨

연세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착되어있는
교육문화사업으로써, 여름방학마다
다양한 문화강좌들을 저렴하게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온스쿨 시행 가안

	강좌명	일시
3/7 ~ 3/29 (4회 완성)	기초 중국어 회화	토 11:00 ~ 12:00
	요가	토 14:00 ~ 15:00
4/5 ~ 4/26 (4회 완성)	초급 기타 배우기	일 12:00 ~ 13:30
	고급 보컬 트레이닝	일 16:00 ~ 17:00

국제캠퍼스 라온샘 식당문제 개선

해결방법1. 라온샘 식사가격 일반인과 학내구성원 차등책정

라온샘 식사가격을 전체적으로 인상하고, 학내구성원 신분증이 확인되면
기존의 가격 또는 그 이하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줄어들뿐더러, 외부인들로부터 낸 수익금으로 학내구성원 가격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2. 학내구성원 우선 이용 제도

현재 학내구성원 전용 주문시간 (평일 오후 12:00~1:00, 6:00~6:30)에서
12:30~1:30, 5:30~6:30으로 연장해 학내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성평등센터 설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지난 7월 국제캠퍼스 교육문제해결 TFT에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수업 보조 등 원활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국제캠퍼스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성평등센터 설립〉

2014년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제캠퍼스 성폭력 관련문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공식 신고된 성폭력사건 중 30%(22건 중 7건)가 국제캠퍼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제캠퍼스에는 성평등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업무 및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제캠퍼스에도 성평등센터를 설치해 성폭력 예방 및 상담 등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캠퍼스 장애학우 콜밴 시스템 도입

장애학우들의 캠퍼스 간 이동시간 (2시간 5분)
국제캠퍼스 → 캠퍼스타운역 → 신촌역 → 신촌캠
비장애학우들의 캠퍼스 간 이동시간 (1시간)
국제캠퍼스 → 신촌캠

국제캠퍼스-신촌 택시 카풀 도입

연세App에 택시카풀 탭을 추가하고, 신촌-국제캠퍼스 간 이동을 원하는 학우들이 '함께' 택시를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택시를 타면, 값이 싸고 안전합니다!

카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통행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일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주말 개방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주말 개방을 통해 학우들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주말 개방

사용하는 사람은 있지만 조명이 없어서 위험한 국제캠퍼스 운동장의 밤. 신촌의 대운동장처럼 야간조명탑을 설치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버스 탑승 유도선 설치

국제캠퍼스의 정문주변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요자가 많아 정류소 주변은 여전히 혼잡합니다.

버스정류소 주변에 탑승 유도선을 설치하여 연세인이 조금 더 질서있게 M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Body For Life 수업과 종합관 헬스장 별도 운영

Body For Life 수업시간에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월요일의 경우, 학생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저녁 시간에도 수업이 있어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1기숙사 지하 헬스장을 Body For Life 수업에 이용하고 헬스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셔틀버스 시간조정

국제캠퍼스 - 해양경찰서로 운행 셔틀 현재 운행상황
16:00 ~ 18:00 / 시간당 2대씩, 총 4대
18:00 ~ 20:00 / 시간당 1대씩, 총 2대
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이 정작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18:00 ~ 20:00

하우스 배정 시 무작위가 아닌 개인선호순위 반영
룸메이트 변경 희망 시 반영하여 다음 학기 방 배정
HE '연인' 거리별로 비례 제공
2기숙사 통신3사 중계기 설치해 수신감도 개선
국제캠퍼스 내 개인생활 공간 및 환경 확충
기숙사식당 식권선불제로 가격인하 및 대기시간 감소
밴드합주실 주기적인 수리 및 환경개선
기숙사 경비실간 외출 관련 벌점 메뉴얼 통합
커뮤니티 룸 냉장고 내용물 도난방지 CCTV 설치
기숙사 앞 자전거 보관소의 주기적인 정리
지혜관 이용가능시간 연장

국제캠퍼스가 진정한 RC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블유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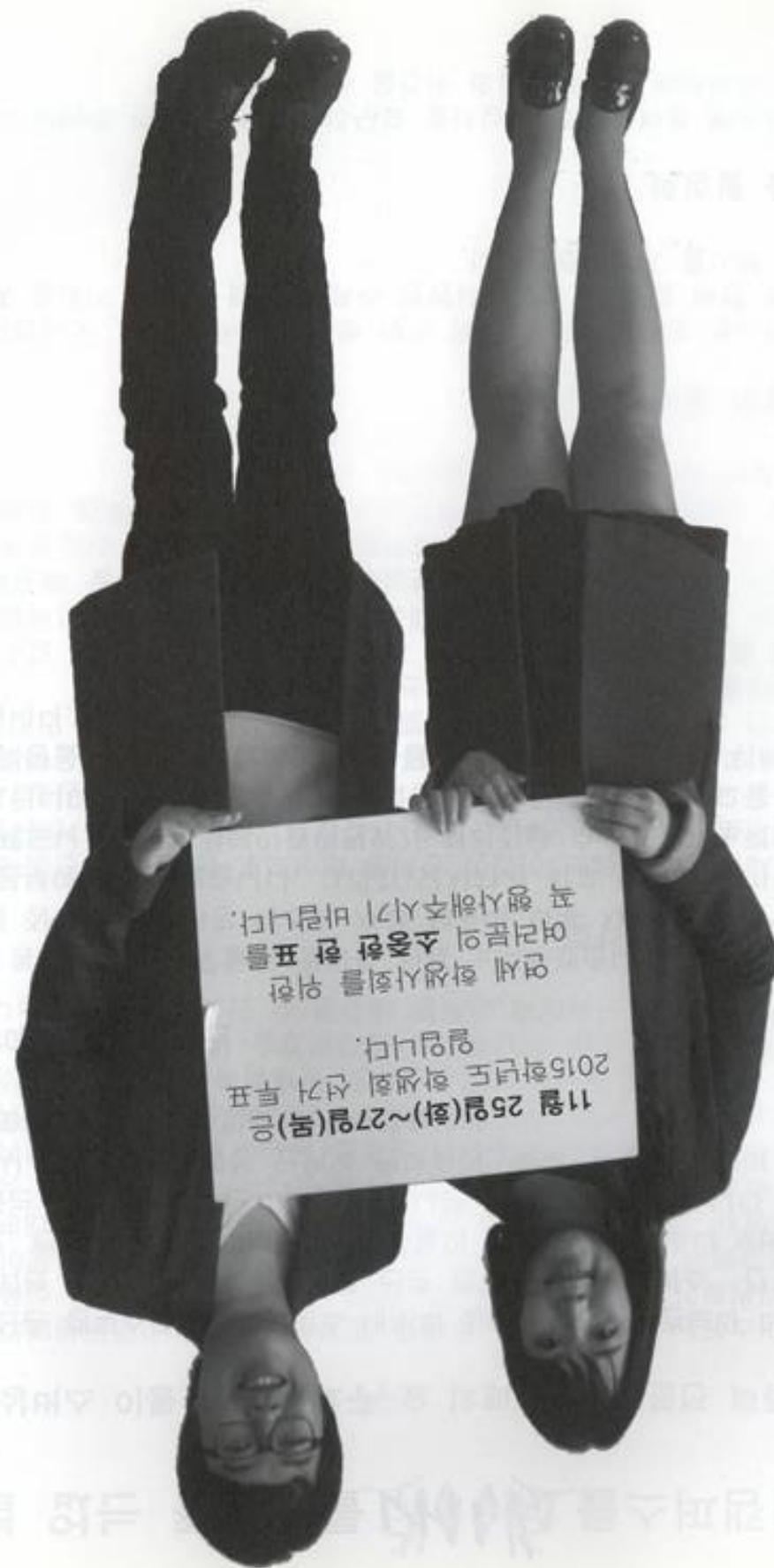
총학생회는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합니다.

DOUBLE YOU

당신과 당신이 함께 이루는 우리



2014년 11월 25~27일은 2015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일입니다.
연세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화)~27일(목)은
2015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
일입니다.
연세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포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